

구로구의회 302회 정례회 폐회 전반기 議政활동 마무리

제2회 추경·조례안 심사·행정사무감사·구정 질문 등 마쳐



구로구의회가 지난 6월 22일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5월 25일부터 29일간 진행된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 2021년도 제2회 추경안, 조례안 심의, 구정질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구로구의회(의장 박동웅)가 지난 6월 22일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5월 25일부터 29일간 진행된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처리, 구청장 및 국장을 참석 시켜 구정질문 등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관련기사 2·3·6·7·8·9·10면>
특히 정례회 중 지난 6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열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1건, 건의사항 72건, 우수사례 87

건 총 210건을 발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려는 의원들의 의욕이 돋보였다.

또한 6월 18일과 21일에는 지역당면 사항과 주요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날카롭고 심도 있는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18일 진행된 구정질문(일반분야)에는 정형주, 김희서, 이명숙, 김영곤 의원이 참여했다.

정형주 의원은 ▲오류동 텃골 문화공원 확대 필요성과 확보계획, 김희서 의원은 ▲항동지역 광명~서울 지하고속도로 공사 관련 구청의 대응계획, 이명숙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주민피해 대책, 김영곤 의원은 ▲관내 민간임대주택 증가에 따른 임차인 권리증진과 보호에 관한 대책마련 ▲마을버스 지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대해 질문하고 이에 대한 소관 국장의 답변을 청취했다.

또 21일 진행된 구정질문(시책분야)에는 이재만, 김희서, 박평길, 최숙자 의원이 참여했다.

이재만 의원은 ▲외부기관의 구청사 무상 사용 관리, 김희서 의원은 ▲백신휴가 활성화 권고에 따른 구로구의 대응사업, 박평길 의원은 ▲구로구 우호도시 중국 연변조선 자치구권 동영상 관련, 최숙자 의원은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 내부갈등 해결방안 ▲백산빌라 안전 점검 후 주민대책 방안 ▲구로5동

하반기 마을공동체 사업 주민 공모

씨앗기·실행기 분야... 7월 2일부터 9일까지 인터넷 신청

분야 따라 100~300만원 지원

구로구가 하반기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할 주민을 모집한다.

구는 사업 이해도, 참가 경력 등을 고려해 씨앗기 '동단위 이웃만들기' '소모임형성', 실행기 '골목환경문화 공동체' 등 3개 분야에서 참가자를 공모한다.

'동단위 이웃만들기' '소모임형성'은 마을공동체 활동경험이 없는 초기 모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골목환경문화 공동체'는 마을공동체 경험이 있는 모임을 대상으로 골목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문화조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로구는 분야에 따라 100만원~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골목환경문화 공동체' 사업은 보조금의 5% 이

상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모임은 오는 7월 2일부터 9일까지 단체소개서, 사업신청·제안서, 지방보조금지원신청서 등의 서류를 갖춰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maeul.org)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구는 서면 심사,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8월 말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7월 7일까지 마을공동체 활동, 신청 방법 등 사업 안내 상담을 실시한다. 상담을 원하는 이는 구로구마을자치센터 홈페이지(guromaeul.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구로구마을자치센터 863-9580, 구청 자치행정과 860-2208. <김유권 기자>

지역주택조합 주민피해 예방방안에 대해 질문하고 이에 대한 이성구청장의 답변을 청취했다.

박동웅 의장은 회기를 마치면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29일간의 긴 정례회 기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예산안 등 안전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의원들과 자료준비와 답변에 성실

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소감을 밝히며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들이 제안한 사항들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채홍길 기자>

오늘 의회 특집 16면 발행

서울오늘신문을 검색하시면 많은 기사를 보실수 있습니다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행복한 구로를 만들어 가는 그 길에 구로구의회가 언제나 함께 합니다

의장



박동웅

부의장



곽윤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운영위원장



김철수 의원

행정기획위원장



이명숙 의원

복지건설위원장



최숙자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호연 의원

안전관리특별위원장



노경숙 의원

주택복지특별위원장



정대근 의원



박철성 의원



김영곤 의원



박평길 의원



김희서 의원



이재만 의원



정영주 의원

구로구의회 이명숙·노경숙 의원 '2021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구로오늘신문 선정

구로오늘신문사가 '지방의회의 꽃'인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로구청 집행부를 상대로 두각을 나타낸 구로구의회 이명숙 의원(행정기획위원장)과 노경숙 의원(복지건설위 부위원장)에게 '2021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상패를 수여했다.

상패 시상식은 지난 24일 오후 4시30분 구로구의회 4층 의정실에서 10여명의 동료의원·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지 유희상 회장과 김유권 발행인이 상패와 꽃다발을 전달했다.

이명숙 의원은 행정기획위원회 행정감사에서 환경오염 문제와 쓰레기 줄이기의 일환으로 아이스 팩 재활용 위한 아이스 팩 수거함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나 수거함이 태부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각 동 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각 아파트와 지역에도 아이스 팩 수거함을 설치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또 불용의약품 수거 관련 불용 의약품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안전한 의약품 복용뿐만 아니라 안전한 폐기에도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홍보와 함께 관내 약국에 불용의약품 수거함 설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구로오늘신문사가 지난 24일 구로구의회 4층 의정실에서 '지방의회의 꽃'인 행정사무감사에서 두각을 나타낸 구로구의회 이명숙 의원과 노경숙 의원에게 '2021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상패를 수여했다. <사진 왼쪽부터 본지 채홍길 편집국장, 유희상 회장, 노경숙의원, 이명숙의원, 김유권 본지 발행인, 김기중 구의회 사무국장>



'2021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이명숙의원(왼쪽)과 노경숙의원.

또한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의원은 행감에서 장애통합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치료사와 100명 이상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어려운 환경에서 사랑과 사명감으로 현장에서 아이들의 정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처우개선비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친환경콘덴싱 보일러 보급 지원금이 전반기에 모두 소진되어 주민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업 수요에 맞는 적극적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명숙 의원과 노경숙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구의원으로서 열심히 자료를 찾고 현장을 방문해 정상적인 행정감사를 수행했을 뿐인데 이렇게 지역언론사의 의미있는 상을 받게되어 감사하다"고 말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의정활동 하라는 격려로 알고 더욱 더 정진 하겠다"고 밝혔다. <채홍길 기자>

구로구의회 박동웅의장·최숙자 의원, 백산빌라 민원 현장 점검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이 지난 17일, 최숙자 의원과 함께 구로5동에 위치한 백산빌라를 찾아 민원 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백산빌라 입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 요청에 따라 민원현장을 직접 살피고 문제점을 파악해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이뤄졌으며, 현장에는 백산빌라 입주민, 구청 관계자 등이 함께 했다.

구로5동 롯데아파트와 일신건영 아파트 맞은편에 위치한 백산빌라는 지난 1995년에 준공된 지하1층 지상4층 구조의 건물이다. 총 4개 동이었다가 1개동이 붕괴 위험을 보여 지난해에 철거되었고 현재는 3개동에 28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이날 입주민들은 건물 주변 대기 침하와 응벽 균열 등 주민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신속한 안전대책 등의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 의장은 해당 민원사항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왼쪽서 세번째)이 지난 17일 최숙자 복지건설위원장(왼쪽서 두번째)과 함께 구로5동에 위치한 백산빌라를 찾아 민원사항을 청취했다.

을 경청한 후 "백산빌라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전하며 "오늘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집행부와 적극 협력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에 동행한 구청 관계자에게는 "장마철 등 재해발생 예방을 위해 응벽 및 지반 보강이 필요함에 따라 조속한 지반조사와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장활동을 마치고 박 의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더욱 정확히 알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채홍길 기자>

개봉2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이전 업무 개시

지난 28일부터 구로평생학습관 2층서

개봉2동 주민센터 임시청사가 구로평생학습관(남부순환로 946) 2층으로 이전해 지난 28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구로구는 "기존 임시청사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주민 불편과 행정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청사를 이전·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전한 개봉2동 주민센터는 총면적 228㎡ 규모로 민원실을 비롯해 민원행정팀, 복지건강팀, 주민등록서고, 동대본부 등이 자리를 잡았다.

업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각종 민원과 주민 복지 업무를 처리한다. 단, 자치회관과 작은도서관은 운영되지 않는다. 광정희 자치행정과장은 "새로



운 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임시청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구청 자치행정과 860-2495, 개봉2동 주민센터 2620-7253. <김유권 기자>

소형음식점 '음식물 종량제 봉투' 지원

구로구가 소형음식점에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봉투를 지원한다.

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제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형음식점의 경영지원을 위해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봉투를 무상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로구는 지난 4월 '서울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해 코로나19 긴급지원 무상배부용 종량제봉투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사업장 면적 200㎡ 미만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다. 다량배출사업장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제외된다. 구로구는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10리터 봉투 90매, 총 3개월분을 각 사업장으로 직접 배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형음식점 약 5,000여 개소에서 3개월간 4억 2,000만원 규모의 배출 수수료를 감면받게 된다.

임보상 청소행정과장은 "이번 종량제 봉투 무상 지원 사업이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문의) 구청 청소행정과 860-2377. <김유권 기자>

상반기 주민자치위원회 유공자 16명 구청장 표창 수여

구로구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회장 이희진)는 지난 16일 구청 5층 강당에서 월례회의를 열고 상반기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발한 활동으로 유공자로 선정된 16명에게 구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신도림동 조종희 위원 △구로1동 홍선표 간사 △구로2동 이진욱 위원

△구로3동 남영미 감사 △구로4동 이순봉 위원 △구로5동 김기설 위원 △가리봉동 김효림 분과위원장 △고척1동 신인균 위원 △고척2동 최철희 간사 △개봉1동 우태석 위원 △개봉2동 고운배 고문 △개봉3동 이정숙 위원 △오류1동 한인선 간사 △오류2동 장정희 위원 △수궁동 한철규 간사 △항동 김창한 감사 등이다. <채홍길 기자>

구로오늘신문		주소: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5길 51 한성상가 B동 325호 전화: 02)830-0905 이메일: news121@empas.com
홈페이지: http://gurotoday.com 다음카페: 구로오늘신문		
회장: 유희상 주관: 한만수 등록번호: 서울 다-5105 구독/광고문의 010-9096-1144	발행인: 김유권 편집국장: 채홍길 구독료: 월 5,000원 / 연 50,000원 기사제보: 02)830-0905 계좌번호: 우리은행 예금주 김유권 1002-347-55347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 인터뷰

“구민 목소리 경청, 발로 뛰는 의정 활동 펼칠 것”

제8대 구로구의회 후반기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다. 구로구의회가 상생과 협치의 의정활동으로 순항할 수 있었던 배경엔 지난 1년 간 구로구의회를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 동료의원들과 함께 ‘현장 중심의 의회, 소통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애쓴 박동웅 의장의 리더십이 밑바탕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로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민의 여망에 보답할 수 있는 의장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하는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 한양대학교 도시공학박사 출신인 박 의장은 3선 의원으로, 육군대위로 전역(포대장) 후, 구로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제6대 후반기 구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7대 후반기 구로구의회 부의장을 역임하고 원광디지털대학교 시간강사, 경희대학교 시간강사, 제8대 구로구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 22일 제8대 후반기 박동웅 구로구의회 의장을 만나 1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소회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박 의장과 일문일답이다.



박동웅 의장이 “구로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민의 여망에 보답할 수 있는 의장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본지 기자에 밝히고 있다.

각종 민원 해결, 재해 현장, 현안 사업추진 현황점검 등 ‘현장 의정’ 통해 구민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한 1년 남은 임기 집행부 견제 역할 충실, 시대변화 소통에 최선 코로나19 관련 주민 민생 챙기고 경제 회복 최우선 가치로

- 7월1일로 제8대 의회 후반기 의장 취임 1년이다. 소감은?

어려운 시기에 의장직을 맡아 열심히 달려온 지 벌써 1년이 되었다. 지난 1년간 걸어진 시간을 되돌아보면 46만 구로구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구의회 의장으로서 구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과 올바른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쉬지 않고 달려온 나날이었다.

지난 1년 동안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했지만 코로나19로 움츠러든 현장 활동의 제약 등으로 다소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다. 남은 임기 중 집행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온라인 소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발로 뛰는 의정 활동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 대변하기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

지난해 말 32년간의 오랜 기다림 끝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는 지방의회 출범 30주년이라 감회가 새롭다. 의회 안팎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지난 30년을 귀감으로 삼아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하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 그동안 의장으로서 추진한 의정 활동 성과는?

지난해 7월 개원한 제8대 후반기 구로구의회가 벌써 1년이 지났다는 게 실감나지 않을 만큼 저를 포함한 구로구의원 모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의장으로서 회기 운영을 비롯해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른 안정적인 의회운영으로 민생현안을 처리했으며, 의원 역량강화 교육, 연구단체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전문성을 갖

춘 구로구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또한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역주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주민들의 갈등이 유발되는 현안 사항이나 각종 민원 해결, 재해 현장, 사업 추진 현황 점검 등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구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애썼으며, 사회적 약자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의정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어르신, 장애인,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배려하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간담회나 토론회 등을 수차례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 4월에는 지방자치의 부활과 지방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14명의 의원이 함께 지방의회의 위상강화와 지방자치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지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개원 3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수를 심으며 지난 30년간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성과를 돌아보면서 구로구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의장으로서 새로운 자치와 분권의 시대에 발맞춰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인사권 독립과 전문인력 선발 등에 필요한 준비를 차근차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과 성숙이야말로 구로구의 지속가능한 미래성장과 구민의 삶의 질을 이끄는 힘이라 믿는다.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자치와 분권의 시대를 알차게 준비하고 그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 현재 구로구 관내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구로구에는 굵직한 지역개발 현안들이 산재해 있다. 경인선 지하화, 오류시장 현대화와 재개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고척동 교정시설 부지 및 개봉역 주변의 인프라 확장, 신구로선 지하철 유치 등 지역 숙원사업이 즐비하다. 단순히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균형발전 나아가 국가발전 차원에서 실현되어야 할 사업들이다. 도시가 생명력을 갖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 행정 등 소프트웨어와 도로, 교통 등 하드웨어의 개발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서울 동남권의 각종 개발사업은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반면 서남권은 상대적으로 더디다. 장기적으로 보면 도시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국가적 손실이다. 충실하게 정보를 준비하고 꾸준히 화두를 던지며 지속적으로 국회와 중앙정부에 알리고 설득하는 것이 구의회와 구청 등 기초단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이러한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구로구의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또 다른 현안사항으로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사후대책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제반사항 해결을 들 수 있다. 구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에 구민들은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대해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백신 접종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 상당한 기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에 우리 의회는 우리 구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수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고용정책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에 대한 일자리 창출 대책 마련에 힘쓰며, 구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행부와 소통하며 민생을 살피나가겠다. 주민 중심 민생을 챙기고 경제 회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겠다.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충분한 협력으로 함께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주민의 의견을 듣고 서로 소통하고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꼼꼼하게 살핀 후 그 대안을 제시해 집행부와 잘 협력해 구체적인 대책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임기가 이제 1년 남았다 각오와 함께 구민에 한 말씀

저는 구로구의회 3선 의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구로구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여러분께서 믿고 맡겨주신 구로구의회 의장이라는 중책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늘 낮은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과 소통하며, 구민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로구의회 의장으로서 남은 임기동안 당적을 떠나 14명의 구로구의회 모든 의원들이 한 마음으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해 의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구민의 관심과 참여가 없는 지방자치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항상 변함없는 애정으로 칭찬과 조언, 때로는 따끔한 질책을 아끼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로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에도 귀를 기울이고 현장 속으로 직접 찾아가서 구민 여러분의 손과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열린 의정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로구를 사랑하는 지역의 정치인으로서 변함없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구민 곁에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채홍길 기자>

이성 구청장 민선 7기 3주년 인터뷰

“스마트 녹색도시 구현, 미래 기반 다지기 주력 할 것”

“기존 사업들을 마무리하기보다는 스마트도시, 녹색도시 등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단단히 다지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 구청장이 구로오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구로의 미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구청장은 민선 7기 취임 후 주민들의 미래 생활환경을 위해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도시, 일자리가 많은 스마트산업도시, 경쟁력 있는 교육·문화도시, 지역균형발전도시, 더 안전하고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전력을 다해왔다.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남은 임기도 지난 11년처럼 바쁘게 보내겠다는 이성 구청장을 지난 23일 만나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 구로구 첫 3선 구청장인데, 이제 임기 1년을 남겨놓고 있다. 지난 11년의 소회와 앞으로의 각오는?

주민 여러분께서 오랜 시간 믿고 응원해주신 덕분에 3선 구청장이 될 수 있었다. 2010년 처음 선거에 출마할 당시만 하더라도 당선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고 낙선할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기 때문이다. 3월부터 6월까지 100일 넘게 새벽 4시 반에 나와서 자정 무렵 집으로 돌아왔다. 구로구 지도를 구해 골목 구석구석까지 찾아가며 많은 주민들을 만났다. 주민들과 소통하며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구청장이 되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봐야 할지 알 수 있었다. 그 시간이 10여년간 구정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취임 후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 숨 가쁘게 보냈다. 민선 7기 취임사에서도 구로구 첫 3선 구청장으로서 마무리만 하지 않고 미래를 위한 새 길을 열겠다고 다짐했다. 코로나19로 중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업들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남은 임기가 1년밖에 되지 않지만 주민들의 미래 생활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새로운 사업이라도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마지막 그날까지 주민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다.

◇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 공약 사업의 성과는?

2010년 취임 이후로 부족한 도시 인프라 확충에 힘쓴 결과 이제는 각 분야에서 서울의 어느 자치구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구로구는 과거 잦은 침수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 특히 2010년 추석 연휴 기록적인 폭우로 관내 2,311가구가 물에 잠기는 큰 피해를 입었다. 이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기울였다. 수년에 걸친 수해 예방 대책으로 지금은 집중호우에도 끄떡없는 수해 안전 도시로 거듭났다.

· 문화도시로 우뚝

구로구는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 문화도시가 됐다. ‘도시의 미래는 책 속에 있다’는 신념으로 책 읽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임기 초반 40곳이 되지 않던 도서관이 지금은 113곳으로 늘어 서울 자치구 중 최상위권에 속한다. 단순히 도서관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해마다 구로 책 축제, 구로의 책 선포식, 구로의 책과 연계한 각종 독서프로그램 등 독서 생활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도 열고 있다.

· 34개 국공립어린이집 95개로 늘려

보육환경도 몰라보게 개선됐다. 2010년 34개였던 국공립 어린이집을 95개로 확대했다. 또,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력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동네키움센터’도 16호점까지 조성했고, 주민 커뮤니티시설을 활용한 ‘구로형 온종



“기존 사업들을 마무리하기보다는 스마트도시, 녹색도시 등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단단히 다지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 구청장이 구로오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구로의 미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돌봄센터’도 17곳을 운영하고 있다. 학습지원센터, 평생학습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등 다양한 교육공간 조성을 통해 교육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 취임 후 매년 1만개 일자리 창출

일자리가 많은 도시로 우뚝 섰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신념으로 취임 후 매년 1만개가 넘는 일자리를 창출해왔다. 구로의 많은 중소기업들은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이에 기업의 인력수요를 바탕으로 그에 따른 연령, 상황별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교실, 중장년 대상 경비원·버스기사 양성 과정, 중장년 재취업 토탈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그 결과 지난해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19년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이로써 2010년 취임 이후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각종 일자리 평가에서 11년 연속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 다핵화 통한 ‘균형 발전 도시’ 박차

개발 분야에서도 다핵화를 통한 ‘균형 발전 도시’가 돼 가고 있다. 기존에는 신도림 역세권과 구로디지털단지 일대 등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지만, 최근에는 서쪽 지역 집중 개발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계획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고척동 지역의 옛 영등포교도소 부지다. 수많은

난관을 뚫고 2018년 12월 착공한 교정시설 부지 개발 사업은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다. 총 면적 10만5087㎡에 이르는 해당 부지에는 최고 45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6개 동과 최고 35층 규모 아파트 5개 동 등 총 2200여 세대의 대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이 일대에는 동주민센터, 돌봄시설, 생활문화센터 등이 입주하는 복합청사와 구로세무서도 새롭게 자리 잡을 예정이다.

소음, 분진이 가득했던 개봉동 한일시멘트 공장 부지는 3년여 간의 공사를 마치고, 지난해 쾌적한 아파트 단지로 변모했다. 총 면적 4만1520㎡의 해당 부지에는 1089세대에 달하는 지상 13~35층 아파트 8개 동이 들어섰다.

이 밖에도 천왕동과 향동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섰고, 앞으로 운수역 주변 대흥·성원·동진 재건축사업, 럭비구장 이전 등 운수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운수동 일대도 몰라보게 달라질 것이다.

· 미래 도시 위한 다양한 사업 전개

민선 5, 6기 시절 구로구를 도시다운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면 7기에 들어서는 구로구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3년간 관내 100호 도서관 신도림기적의도서관 건립, 안양천 생태초화원 조성, 천왕산 가족캠핑장 개장, 천왕역 일자리 토탈플랫폼 ‘청년이룸’ 조성, 향동 생활체육관 건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개관, 스마트도시 가상체험관 조성, 오류1동 노후청사 복합화 사업 완료, 상호문화도시 인

증 등 많은 결실을 거뒀다. 지난해 말 기준 민선 7기 5개 핵심분야 89개 공약사업에서 이행률 75%를 달성했다.

대외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다산목민대상’ 대통령상,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보건복지부 장관상,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최근에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SA)등급을 획득했다. 2018년부터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이다.

· ‘녹색도시 조성’과 ‘스마트도시 사업’

민선 7기의 대표적인 성과로 녹색도시 조성 사업과 스마트도시 사업을 꼽을 수 있다.

2019년 11월 안양천 유희부지에 총 면적 1만7,500㎡에 달하는 서남권 최대규모의 생태초화원을 조성했다. 기존에는 갈대와 잡초가 무성하던 땅이었으나 장미원, 습지원, 잔디마당, 창포원, 초화원, 농촌체험장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섰다. 주민 이용 편의를 위해 태양광 안내관, 초가 정자, 벤치, 포토존 등을 설치하고 야자매트도 마련했다.

올해는 안양교와 광명교 사이 1km 구간에 4,000㎡ 규모의 장미터널을 조성하고 잔디광장도 추가로 만든다. 생태복원 및 녹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지난 1월 안양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금천·영등포·양천구 등 3개 자치구와 함께 ‘안양천 명소화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5면으로 계속>



5월 서울 4개 자치구와 광명·군포·의왕·안양 등 경기 4개 시의 단체장들이 안양천 생태초화원에 모여 ‘안양천 명소화·고도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성 구청장 민선 7기 3주년 인터뷰

“1년 남은 임기, 지난 11년처럼 최선을 다하겠다”

〈4면에 이어 계속〉

또 5월에는 기존 서울 4개 자치구와 광명·군포·의왕·안양 등 경기 4개 시의 단체장들이 안양천 생태초화원에 모여 ‘안양천 명소화·고도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본계획 수립, 국비 예산 확보 공동 협력, 특정시설 과다 중복 설치 자제, 시설 공동 이용, 장비·벚꽃 100리길 조성 및 합동 축제 개최 등을 약속했다. 또 안양천을 향후 5년 내에 태화강, 순천만 등에 버금가는 국가정원으로 만들자는 공동 목표도 세웠다.

· 녹지대로 다양한 휴식공간 확충

지역 내 풍부한 녹지대를 활용해 다양한 휴식공간도 확충하고 있다. 지난해 9월 항동 149-1 일대에 2만7550㎡ 규모의 ‘천왕산 가족캠핑장’을 개장했다. 천왕산 가족캠핑장은 야영 데크 30면과 주차장, 샤워장, 식기세척장,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췄다.

올해 초 캠핑장 주변에 9100㎡ 규모의 생태숲도 조성했다. 오랜 기간 경작지로 사용돼 훼손됐던 곳에 생태연못, 저류습지, 조류서식지, 관찰데크, 숲속생태놀이터, 산책로 등을 마련하고 소나무, 매화나무, 산사나무, 사철나무, 산수국, 진달래 등 나무와 구절초, 꽃창포 등 화초류를 새로 심었다. 최근 야외 인공암벽장을 준공했고 스마트팜, 목공소 등의 체험시설도 추가로 만들 계획이다.

서울 서남권의 대표 수목원인 항동 푸른수목원도 기존 20만 956㎡에서 4만5000㎡ 확장한다. 수목원 인접 부지를 편입해 암석원, 자연생태관찰원, 삼림욕장 등을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 ‘스마트도시’ 조성에도 박차

스마트도시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과거 굴뚝 연기로 가득했던 구로가 이제는 IT, 지식기반 산업을 주도하는 첨단 디지털 단지로 탈바꿈했다.

스마트도시는 결국 모든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그런 이유로 2017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스마트도시팀을 만들었고, 2019년에는 스마트도시과로 조직을 확대해 인력과 예산을 확충했다. 전국 최초로 관내 전역에 와이파이망과 사물인터넷망을 모두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스마트도시 사업으로 ‘위험시설물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IoT취약계층 스마트 안심케어 서비스’를 꼽을 수 있다.

‘IoT 기반 위험시설물 안전관리에·경보시스템’은 2018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건물, 교량 등 노후·위험시설물에 감지 센서를 설치해 기울기, 균열, 진동 등 붕괴 위험 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축적된 데이터는 시설물 안전등급 부여에 활용하고, 이를 통해 안전등급에 맞춰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다. 기존 100

사업이다.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위험상황을 즉각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다.

최근에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방법과 교통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폴·횡단보도’ 설치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폴은 하나의 지주에 IoT 보안등, 지능형 다목적 CCTV, WiFi, LoRa 등을 통합 설치해 예산절감뿐 아니라 도시미관 개선 효과도 거둘 수 있다.

◇ 매듭짓지 못한 사업을 분야별로 평가한다면?



사진 상단 왼쪽부터 잘 가꿔진 안양천 서남권 최대규모 생태초화원, 4천여대의 CCTV를 총괄하는 통합운영센터, 천왕역에 설치된 일자리지원 청년이름, 지난해 9월 개장한 천왕산 가족캠핑장.

여개 센서로 관리하던 것을 최근 600개까지 확대했다.

‘IoT 기반 위험시설물 안전관리에·경보시스템’을 통해 5월 31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시상식에서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회장상을 수상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지난해 5월 구축했다. 구청 각 부서가 운영하는 사물인터넷 사업들을 구 통합운영센터 CCTV와 연계해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이다. 각종 범죄, 사고,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경찰서와 소방서 등 유관기관에 관제 영상을 제공하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지난해 말에는 고도화사업을 통해 통합운영센터의 기능을 대폭 개선했다. 4000여대의 CCTV와 스마트기술의 결합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관리가 가능해졌다.

‘IoT취약계층 안심케어서비스’는 홀몸어르신, 어린이 등 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한

공약했던 사업들은 대부분 성과를 거뒀다. 보육, 교육, 문화, 경제, 안전, 지역개발 등 각 분야에서 크게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고 자부한다. 물론 다른 지역과 이해관계 등에 따라 계획보다 진행이 늦어져 아쉬운 사업도 일부 있다.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이 그렇다. 임기 중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위해 그동안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이전 예정지 변경, 타당성 조사 중지 및 재개 등 난항을 겪은 끝에 2016년 말 타당성 재조사 결과 기획재정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이후 서울시와 함께 ‘구로차량기지 이적지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했고, 2019년에는 해당 부지 일대를 주거, 문화, 상업, 업무가 조화를 이루는 ‘그린스마트 벨리’로 개발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해 주민설명회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절차를 이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

서 15% 이상의 사업비 증가로 2차 ‘타당성 재조사’가 결정됐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수행하는 2차 타당성 재조사 용역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 국토부에서 구로차량기지 이전과 연계된 광명·시흥 제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사업의 불투명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생각한다.

2019년 이 일대 개발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안을 수립했다. 계획안에는 ‘녹색도시’ ‘보행친화 도시’ ‘스마트도시’의 3가지 개념을 바탕으로 일반상업지역 80%, 준공업

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균형발전을 막는 걸림돌이 됐다. 이에 단절된 도시 회복, 수도권 균형발전, 미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4년 경기, 인천 등 자치단체와 함께 지하화를 추진했다. 당시 자치단체 실무회의를 구성하고, 민관이 힘을 모아 100만인 서명 운동을 전개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뜻대로 되지 않았다. 연구용역을 진행했음에도 경제성 부족으로 무산됐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가 인천역에서 구로역까지 경인선 약 27km 구간에 대한 ‘도시재생과 경인선 철도시설의 효율적 연계 방안 사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상태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 여부는 용역이 마무리되는 연말쯤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46만 구민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지난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인해 구로구 또한 수차례 위기를 맞았는데, 주민들께서 구청의 방역 정책을 믿어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주신 덕분에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빼앗긴 일상을 올해 안에 되찾을 수 있도록 백신접종 지원, 역학조사, 지원정책 마련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많은 신뢰와 응원을 받아왔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10여년간 많은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었고, 성과도 거뒀다. 주민들께서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구청장을 믿어주셨으면 한다. 저는 사심 없이 일하고 있고, 퇴임 이후에도 공직생활을 계속 해야겠다는 욕심이 없다. 오직 더 살기 좋은 구로를 만들겠다는 일념뿐이다. 임기가 많이 남진 않았지만, 마지막 날까지 대충 뒷정리만 하다 갈 생각은 없다. 진행 중인 사업이 많다. 내년 6월 착공 예정인 사업도 10건은 되는 것 같다. 후임 구청장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결해놓고 떠날 생각이다.

◇ 퇴임 후 제2인생 관련 구상한 것이 있다면?

다음 행보로 아직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 결정하지는 않았다. 일단 서울시 공무원을 시작으로 40여년간 이어온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이다.

〈김유권·채홍길 기자〉

“본청신관 2층 ‘무단 점유 구로경찰서 민원실’ 적절 조치를”

구로구의회(의장 박동웅)는 지난 6월21일 제302회 정례회 중 제4차 본회의를 열어 4명의 의원들이 이성 구청장을 상대로 시책분야 구정질문과 함께 답변을 들었다. 다음은 질의-답변 요지를 간추린 내용이다.

구로구의회 제302회 정례회 시책 질의-답변(요지)

● 이재만 의원 질의

“무단사용 구로경찰서 민원실 등 공유재산 사용실태 조사 철저 하라”



고척1동, 고척2동과 개봉1동을 선거구로 둔 이재만 의원은 구로구청 본청신관 2층에서 사용중인 구로경찰서 민원실 및 사

무실 240.8㎡의 구로구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사용, 허가 업무와 관련된 부적정 사용 및 허가 그리고 부적정 관리에 대하여, 총무과, 재무과 등 공유재산 관리부서로 하여금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와 징수를 촉구 하고자 한다. 본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본 건의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에는 그 내용 및 절차, 법령 위반 사항, 무상 사용·허가 및 관리 부적정,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징수 부적정 등 여러 부적정한 사항이 발견됐다.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에 따라 계산해보니 6년 6개월, 총 78개월 동안 약 3억9천5백만원을 감면해줬다. 이전 건은 눈감아 준다 해도, 무상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2020년 1월 4일까지, 그러니까 2020년 1월 5일부터 사용·수익허가 없이 사용 하였으며, 2021년 6월 현재까지도 사용·수익허가 없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권한 없이 점유를 계속하면서 편익을 취하고 있는 만큼, 공유재산 사용실태 조사를 철저히 하여 적절한 조치들을 취하시기 바란다.

◎ 이성 구청장 답변

현재 경찰서청사 신축 추진중 반환엔 업무용 사무실-회의실로



질의하신 ‘구로경찰서의 신관 청사 무상 사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다. 우리구는 기존 사용하고 있는 구청 청사가 일부 부족하여 지하1층 지상7층, 건축연면적 5,777㎡ 규모의 신관 청사 신축공사를 시행중인 2014년 6월 2

일, 구로경찰서로부터 경찰서 전체 시설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고, 구민이 이용하는 통합 민원실이 협소하여 민원처리에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으니, 구로구청에서 신관 신축시 시설 일부를 경찰서 신축 시까지 무상으로 사용 하도록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2014년 12월 30일 경찰서에서는 우리구가 정하는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을 수락하는 내용으로 무상사용허가를 신청하였으며, 2015년 1월 2일 사용목적·사용기간·사용면적 등 조건을 포함하여 우리구 재산 사용허가를 승인했다.

승인공간은 신관 2층 중 일부인 240.8㎡ 면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규정에 따라 경찰서에 민원실과 사무실로 사용한 시설에 대하여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승인했다. 기간은 2015년 1월 5일부터 2020년 1월 4일까지이며, 사용기간 중에 경찰서가 신축될 경우에는 신축 시까지로 했다. 다만, 우리구에서 공유재산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사용기간 연장 등 사용허가 조건에 대한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행정절차상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지만 경찰서 청사신축은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고,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진행이 지연되었지만, 최근 청사 신축을 위한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 진행과정 중에 있으며, 올해 하반기 임시청사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경찰서 청사신축 사업이 추진중에 있는 상황에서 경찰서 민원실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허가기간 연장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경찰서 신축공사 착공이 내년 상반기에 진행될 예정임에 따라 올해 말 경찰서가 임시청사로 이전할 것이라는 계획에는 양 기관 모두 이견이 없는 상황이며, 임차공간도 함께 이전한다는 의견에 일치하고 있다. 이에 우리구와 경찰서는 현재 원만한 협의를 통해 허가기간연장 승인을 진행 중에 있다. 향후 반환된 장소에 대해서는 업무용 사무실, 회의실 등 대민서비스와 직원업무 효율화를 위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 김희서 의원 질의

“정부서 백신휴가 활성화 권고 구로구서 선제적 실시 검토를”

오류 1·2동, 수궁동, 향동 정의당 김희서 의원입니다.

정부에서 백신휴가 활성화에 따른 권고가 있었고 기업, 노동계등 사회 전반적으로 백신휴가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올해 하반기에는 이에대



한 법률안이 준비되고 통과 될 것으로 보인다. 백신휴가는 기업의 정상화, 생산력 회복, 노동권보장, 지역 사회방역 안정화 등 여러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특히 국가산업단지인 구로디지털단지가 자리잡고 있는 구로구청은 이에 대한 더 적극적인 대응책이 요구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이다. 개인적 판단만이 아니라 지자체내 기업수, 노동자수, 구로구청의 역할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객관적인 지표이기도하다.

백신휴가에 대한 논의를 구로구청, 구로구청 위탁업체, 관내기업 등부터 시작해 보려하고, 이미 지역경제과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행정감사때도 감사보고서를 통해 주문을 넣기도 했다.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될 것이고, 과정도 몇가지가 있다. 대구시, 고성군 같은곳에서 하고 있는데, 지자체공무원-산하단체직원-지자체 위탁대행업체직원-관련업체 등 구청의 행정력이 미칠수 있는 곳부터 시행하는 방법이 그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국가산업단지인 구로디지털단지가 자리잡고 있는 구로구인 만큼 지역내 기업들과 특히 조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영세기업들이 백신휴가제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두가지다.

과정으로는 토론회 개최등을 통한 지역 사회 공론화, 노사민정 MOU 체결을 통한 참여유도, 분위기 조성,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예산 지원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과 과정에 대한 구청장의 고민과 생각, 정책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 이성 구청장 답변

백신 접종후 발열 등 이상반응엔 다음날부터 병가 사용 할수있다

「백신휴가 활성화 권고에 따른 구로구청내 임직원, 기간제 등 적용에 대한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무원인 직원이 백신을 접종할 경우, 행정안전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에 따라 접종기관으로 이동시간, 접종 소요시간, 이상반응 관찰시간, 휴식시간 등 접종에 필요한 시간만큼 공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백신 접종 후 발열, 오한 등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날부터 병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있다. 현재 우리구 공무원 백신접종 현황은 현원

1,516명 중 248명이 백신접종을 하여 접종률은 16.7%이며, 이로인한 공가사용 인원은 32명, 병가사용 인원은 19명이다.

또 기간제근로자 등 직원의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의 권고사항에 맞게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휴가 부여가 가능하도록 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손실이나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다음은 「백신휴가 활성화 권고에 따른 구로구 관내 기업들에 대한 권고 등 적극 활동에 대한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의 ‘백신휴가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난 6월 2일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디지털단지 기업인연합회,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서울상공회의소 구로구상공회, 온수산업단지공단 등 관내 기업 유관 기관·단체를 통해 ‘백신휴가 권고’ 내용을 전파하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직장 환경 조성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넷마블, 엔에이치엔 한국사이버결재, 태평양물산 등 취업규칙과 노사 단체협약으로 병가제도가 활성화되어 있고 재택근무 등 백신 휴가 도입 여건을 갖추고 있는 대기업과 IT 기업 등이 선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 유급휴가 비용 발생, 대체인력 부족, 근로자 피로도 증가 등의 문제로 백신 휴가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구는 유관 기관 및 단체를 통하여 기업 및 노동계의 백신휴가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박평길 의원 질의

“구로문화재단 대표이사 행감 행동 결자해지 차원에서 구청장의 결단을”



개봉2동·개봉3동, 국민의힘 박평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당초 구청장께 두가지를 질의하고자 했었다.

구로문화재단 전반적 운영현황과, 인사채용 공정성, 인사전보 적정성, 경영평가, 상근 대표이사 복무와 관련된 제반사항 등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 최근 이슈가 된 구로구 우호도시 중국 연변조선자치구 편, 동영상 관련사항이다. >

본 의원이 언급하는 구로문화재단 문제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지 않으셔도 된다. 뒤에서 두터운 힘의 장벽, 어떻게 뛰어넘는지, 두눈 똑똑히 뜨고 잘 지켜보겠다.

<7면으로 계속>

“중국 연변조선자치구 ‘동영상 파문’ 재발방지 대책은?”

구로구의회 제302회 정례회 시책 질의-답변(요지)

〈6면에 이어 계속〉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강평에서 구로문화재단 대표이사 관련, 구청장님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있었던 대표이사의 무모한 행동, 앞으로의 재발방지, 재단의 새로운 질서 확립을 위해, 결자해지 차원에서 구청장의 결단을 촉구한다.

두 번째로 본 의원이 구청장께 질의하고자 하는 구로구 우호도시 중국 연변조선자치구 편 동영상 파문과 관련, 왜 문제인지 함께 고민해 보고,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찾아 보고 구민들과 국민들께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백두산을 중국식 동북공정 명칭인 장백산으로 칭하면서, 역사 왜곡, 문화왜곡 콘텐츠를, 가속화시켜 왔다. 이번만이 아니다. 최근 김치가 세계적으로 각광 받으니 중국은 최근 김치와 한복 등을 자국 문화유산이라고 주장하고, 우리나라 김치를 둘러싼 공방을 지난해 말부터 집요하게 시작했다. 김치를 두고 중국과 벌여지는 치열한 원조경쟁은 또 다른 김치공정의 출발인 것이다.

현재 주변환경의 변화로 친일, 친중, 친북에 대한 사회적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시기에 구청 공식 유튜브 채널인 구로구청 방송센터가, 충분한 사전 검증과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국가적으로도 민감한 역사왜곡 영상을 올려, 구로구의 위상을 실추시켰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고 명확한 재발방지대책 마련하기를 바라면서, 구청장께 질문 하겠다.

첫째, 중국의 동북공정 역사왜곡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로구 우호도시 연변조선자치구 편 동영상을 구청 방송센터에 올리게 된 경위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둘째, 구로구청 공식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200여건이 넘는 항의민원, 언론·방송 등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어떻게 대처했고, 온라인 오프라인 포함 재발방지 대책은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란다.

셋째, 해외교류 국가중 자매도시 4개도시 중 3개 도시가 중국이고, 우호도시는 8개도시 중 중국이 2개도시다. 그쪽도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된 이 사실을 알고 있을텐데, 어떻게 풀어 나가실 건지, 우호도시 연변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 이성 구청장 답변

‘동영상’ 관련 심려 끼쳐 유감 심의위 구성 등 재발방지 최선

우호도시 「연변 조선자치구 편 동영상」과 관련 역사 왜곡에 대해 우려하시는 분 모두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라 느껴진다. 이번 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께 심

려를 끼쳐드려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

중국 연변조선자치구와의 교류는 2014년 10월 한중 우호 교류를 기본 원칙으로 한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양도시 대표단 상호 방문, 공무원 파견 근무, 학교 간 자매결연’ 등 2019년까지는 활발한 교류를 해왔으나, 코로나19 해외 교류도시와의 상호 방문이 어려워짐에 따라 침체된 해외 교류를 활성화 하고자 지난 2월, 온라인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해외 자매도시간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상호 송출하자고 우리구에서 제안을 했고 이에 대한 의견이 합의되어 구로구 유튜브를 통해 ‘연변 조선자치구 편’을 올리게 됐다.

이에 지난 4월 우리구에서는 ‘구로구 홍보 영상’과 ‘구로구 자원순환센터 홍보 영상’ 2편을 연변조선자치구에 보냈고, 연변조선자치구에서도 자체 제작하여 한국어로 번역한 ‘연변 지역 관광 명소’와 ‘조선족 문화가 담긴 영상’을 구로구에 보내왔다.

연변주에서 제작하여 보내온 영상 중에 연변 지역 관광 명소를 소개하면서 백두산을 장백산으로, 발해를 해동성국으로 소개하고 우리나라 전통 음식인 김치와 잡채 등을 조선족 향토 별미로 소개한 부분이 있었다. 이 영상을 보고 5월 31일자 조선일보에서 ‘백두산을 장백산으로 김치는 연변 음식으로 소개한 구로구’라는 제목으로 보도해 읽은 분들이 우리구에서 영상을 제작하여 올린 것으로 오해했고, 우리나라 역사·문화를 중국의 역사·문화로 왜곡하는 것으로 여겨, ‘구청장에게 바란다’와 응답소 등을 통해 200여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우리구는 언론 보도 즉시 구로구 유튜브에서 해당 영상을 삭제했으며, 재발방지 대책·직원교육 강화 등 우리구 입장을 담아 민원에 성실히 답변했다.

답변 내용은 “비록, 연변조선자치구에서 제작한 영상이라고는 하나, 한·중 역사 문제로 문화·정치적 갈등이 될 만한 내용이 담긴 영상을 세밀한 검토 없이 그대로 올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외자료를 구로구가 공식적으로 게시할 때에는 전문가의 감수를 받아 게시할 예정이며, 직원들에 대한 지도 감독과 교육을 실시하고, 구에서 발간하는 홍보물·영상물의 공공성과 합목적성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각부서에서 제작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게재 시 심의위원회 구성을 명문화하여 홍보물의 공공성 및 합목적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

● 최숙자 의원 질의

‘백산빌라’ 관련 구청의 입장은? 구로동 지역주택조합 피해 대책은

신도림동, 구로5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



힘 최숙자 의원입니다.

먼저 구로5동 ‘백산빌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이성 구청장님! 본 의원은 2018년 11월 백산빌라 사고가 일어난

지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열린 정례회에서 구정질의를 통해 백산빌라 향후 조치 계획을 질문한 적이 있다. 올해가 2021년, 현재가 6월이니 2년 6개월 만에 동일한 내용으로 또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백산빌라 가·나·다·라 동 중 비스듬하게 넘어져가든 라 동은 철거를 했습니다만 남은 가·나·다 동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가 나오면 확인되겠지만, 주민들은 너무 불안하고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살고 있는 백산빌라 주민들을 위해 구청장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지?

다음으로 구로5동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구의회 뒤쪽부터 보건소 일대까지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지역주택조합의 피해자들이 건물 벽에 적어 놓은 페인트 글씨체로 동네가 폐허 같아 보인다.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 어떻게 막으실 겁니까? 현행법 체계에서 구청이 조심하라는 현수막을 내거는 이상의 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점 알고 있다.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피해를 막을지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란다.

◎ 이성 구청장 답변

‘백산빌라’ 주민 요구 최대한 수용 대행사 감독 철저, 주민피해 예방

질의하신 최숙자 의원님의 ‘백산빌라’ 건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백산빌라 정밀안전점검 진행사항」에 대해 답하겠습니다.

백산빌라 정밀안전진단은 2021년 3월 24일 서울시에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점검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2021년 4월 20일 우리구가 선정됐고, 5월 3일 서울시로부터 2,700만원을 교부 받아 공개입찰로 점검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백산빌라측에서 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안전점검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요구함에 따라, 우리구는 안전점검 자격요건이 적정하고 과업수행이 가능한 업체라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예정이다.

이어 「백산빌라 재건축 관련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산빌라 가, 나동은 1995년도, 다동은 1994년도에 각 동별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립된 총 28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이다.

백산빌라는 기존 세대수 20세대 미만이고, 대지면적이 10,000㎡ 미만이므로 기존 노후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방식으로는 불가하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①가로주택정비사업 ②자율주택정비사업 ③소규모재건축사업 방식으로 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신속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백산빌라 가, 나, 다동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정비사업’ 방식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방식으로 재건축이 가능한지 검토한 결과 사업 예정지가 가로구역 해당 여부, 건축물 노후도, 기존 건축물 용도 등이 사업시행 조건에 맞지 않아 ‘부적합’ 한 것으로 검토됐으며, 검토 내용은 백산빌라 주민들께 충분히 설명드렸다.

따라서 백산빌라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방식으로 재건축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건축 범위는 ‘기존 백산빌라 가, 나, 다동이 속해있는 대지’만을 대상으로 건축할 수도 있고, 또는 ‘인접한 구유지를 포함’하여 건축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 구에서는 백산빌라 주민 전체가 합의하여 새로운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겠다.

다음은 「구로5동 지역주택조합 주민 피해 예방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로5동에는 현재 (가칭)구로동 지역주택조합, (가칭)구로새마을 1,2단지 지역주택조합, 총 3개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나,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토지 미확보 및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이 가능하여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구로동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가입자들이 추진주체를 고발하는 등 가입자 피해로 인한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했다. 구로동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신고 의무화 이전에 일간신문에 모집 공고 후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업이므로 초기 단계부터 우리 구에서는 가입자 피해예방을 위해 현수막을 이용하여 지역주택사업에 대한 주민안내에 최선을 다했으며, 이로 인해 추진주체로부터 사업방해에 대한 항의를 받기도 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조합원 모집신고 시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 조합원 모집 발기인 및 임원에 대한 자격기준 등을 개정 건의”하여, 2020년 1월 23일 개정된 「주택법」에 우리 구에서 건의한 규정이 반영됐다. 이처럼 우리 구에서는 가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법령 개정 건의, 추진주체의 업무방해를 언급하는 항의에도 주민 및 가입예정자들이 불 수 있도록 현수막 및 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하여 안내하는 등 주민들에게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자세히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해 왔다.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홍보관 및 온·오프라인 홍보자료 모니터링, 대행사 면담 등을 통하여 조합 및 대행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주민피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정리=채홍길 기자>

행정기획위원회 2021 행정사무감사

행정감사 102건 중 우수사례도 44건 발굴 '칭찬'

구로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명숙) 지난 6월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집행부를 상대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감사보고서 총 102건이 제출되어, 이 중 25건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33건은 건의사항으로, 44건은 우수사례로 채택했다.

■ 이명숙 위원장

건의 구로구의 중장년 일자리 프로그램을 보면 경비원 취업지원 교육, 중장년 재취업 토털 프로젝트 운영 등에 한정되어 있음. 앞으로 중장년 취업 프로그램 다양화로 중장년 취업을 제고에 노력해 주기 바람.

건의 환경오염 문제와 쓰레기 줄이기의 일환으로 아이스 팩 재활용 위한 아이스 팩 수거함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나 수거함이 부족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각 동 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각 아파트와 지역에도 아이스 팩 수거함을 설치할 것을 건의함.

시정 음식물 처리기 설치 후 2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은 매월 RFID 유지 보수비를 업체에 지불하고 있지만 수리가 필요시에 업체가 없어질 경우 수리가 불가함. 업체에서 보증금을 예치하든지 수리비 발생시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할 것임.

건의 불용의약품 수거 사업으로 불용의약품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안전한 의약품 복용뿐만 아니라 안전한 폐기에도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기를 바람. 또한 지역 내 약국에 불용의약품 수거함 설치를 건의함.



■ 이재만 부위원장

건의 고척동 구로구민체육센터 2020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주차문제 개선 요청이 많았음. 따라서 2022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리모델링 공사 완료 전 회원프로그램과 연계된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해 공사 완료 후 정상 운영시 주차관제시스템 병행 운영을 건의함.

시정 협치회의의 활성화 위해 협치회의 및 분과운영의 성과·한계를 면밀히 분석해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협치행정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치회의의 운영체계 개선과 주민참여 예산제와의 융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또 협치회의의 1인당 민간위원 29명에 연간 1,177,930원을 회의비 수당을 지급해 시정을 요함.

우수 홍보전산과는 각종 규정 사업에 대한 참신한 보도자료 발굴을 통해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시기에 맞게 적절히 배포함으로써 구로구 위상 제고에 한몫 했음, 특히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구가 펼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조치와 각종 비대면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다수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모으고 타 자치단체의 방역 정책을 선도하였음.

우수 어르신청소소년과는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예산부담이 많은 현실임에도 환경이 열악한 건물 지하공간의 '삼거리 경로당'과, 소방도로상에 컨테이너를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고척장수 경로당' 중간에 위치한 건물을 매입 후 리모델링해 구립 경로당으로 통합 신설로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에 노력하였음.



■ 김철수 의원

우수 교통행정과는 구로1동 구일초등교 등 하프길에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를 신설하고 도로유색포장 정비, 옐로카펫을 조성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구로2동 구로초등교 앞에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신설과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수사례로 선정함.

우수 시설관리공단은 노인인구 증가 및 급속한 은퇴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시니어인턴십 사업으로 다수의 인원을 고용함으로써 시니어의 일자리 창출로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적극 기여하였음. 아울러 정부 지원금을 활용하여 예산 절감을 하였기에 우수사례로 선정함.

우수 지역경제과는 코로나19의 지속과 경기침체로 긴급자금이 필요한 관내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총 200억원을 최대 2,000만원까지, 구청에서 1년간 이자를 전액 지원하게 되었음. 융자지원을 위해 필요한 보증재원 16억의 구비예산을 시중은행과 매칭 출원하여 8억5천만원까지 절감하여 우수사례로 선정함.



■ 서호연 의원

건의 주민참여감독자가 공사와 관련 주민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해 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공사로 인한 주민의 불편 해소와 주민의 구정 참여 기회 확대에 기여하므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민참여감독자의 여비를 1일 3만원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어 검토 바람.

건의 구로시장 영프라자의 천장과 바닥공사(조명 설치 등) 부분 인테리어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고객 유치 및 창업 꿈나무 청년 상인들에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구로시장의 번영 및 영프라자 청년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건의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의 노후화된 공연 장비는 공연시 잦은 기기 오작동으로 현상 유지의 한계를 보이고 있음. 구로의 전문공연장으로서 수준 높은 공연을 주민들에 제공하기 위해 위상에 맞는 시설의 보강이 필요하고, 전문 공연을 위해 사업비를 증액, 구민의 문화생활의 질을 높여주기 바람.



■ 정형주 의원

건의 오류1동 텃밭지역은 공원이 부족한 상태로 주민들 휴식공간과 건강증진을 위해 오류1동 동부골든아파트 후문 앞 내대지를 문학공원 확대 또는 온수근린공원으로 편입, 공원으로 개발할 것을 건의함. 또 온수근린공원은 온수동과 무관한 오류1동이므로 문학공원으로 편입 건의함.

건의 아이돌봄서비스의 실제 수혜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돌봄 서비스 단가를 인상하여 지원인력을 확충하여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을 개선을 건의함.

시정 주거취약계층 주민이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되어도 임시 거처시설이 없어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학대 피해 아동의 안전한 보호시설이 없음. 주거 취약계층의 집수리사업 활성화와 학대피해 아동의 안정적 성장환경 조성 및 인권 증진을 위해 임시보호시설 설치가 필요함.

건의 현재 동 주민센터 방문자는 자동발열 체크한 이후 QR코드나 수기명부를 작성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의 수기명부 작성 시간이 많이 걸려 출입구가 적체됨. 안심콜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화 한통으로 출입이 확인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와 출입구 적체현상을 줄일 수 있어 건의함.



■ 박평길 의원

건의 기존 사업의 답습이 아닌 관내 청년들의 특성을 반영한 구로 맞춤형 청년 일자리사업에 더 고민하고 다양한 형태의 미래지향적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청년 일자리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함.

시정 총 22건의 구정연구과제를 분석 결과, 구의 현실 상황과는 동떨어진 연구과제 선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음. 구에 직접적 반영이나 참고가 될 만한 연구과제를 선정해야 예산낭비는 오명에서도 벗어나 효과적인 구정연구과제 수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임.

건의 현재 보건소 조직으로 감염병 대응은 물론 구민의 건강증진 등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조직과 인력 운영을 분석·개편하여,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비 보건소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조직 개편 시 소외되었던 간호직 관리자(과장) 신설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 바람.

시정 구립도서관의 양적 확충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서비스 질적향상 및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사서 직급제를 실시하여 내실있는 도서관 경영 및 사서직원들의 사기 앙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복지건설위원회 2021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25건·건의 38건·우수사례 42건 채택

구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최숙자) 지난 6월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집행부를 상대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감사보고서 총 105건이 제출되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건, 건의사항 38건, 특기사항 및 우수사례 42건의 감사보고서를 채택했다.

■ 최숙자 위원장

건의) -시내버스 6613번, 6616번이 좁은 이면도로로 운행되고 있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므로 노선 변경 필요.

-부일로9길, 부일로17길, 오리로21길 일대, 온수초등교 등하교 구간 보행로 설치 요함.

-수궁동 주민센터 청사 노후로 인한 문제점 속출, 청사 신축을 건의함.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가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어 어린이집별로 아동학대 전담 교사를 지정해 아동학대 예방에 전력을 다해 줄 것을 건의함.

우수) 부동산정보과는 '전통시장 스마트 공간정보 구축' 사업은 온라인 지도 포털사이트 등으로 서비스가 제공돼 전통시장 접근성이 좋아지고 상품 마케팅 효과도 기대되어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획력, 스마트 기술까지 결합한 사업으로 우수사례로 선정함.



■ 노경숙 부위원장

시정) 장애통합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치료사와 100명 이상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어려운 환경에서 사랑과 사명감으로 현장에서 아이들의 정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처우개선비 지원이 필요함.

건의) 구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가 2020년 9월 제정됐으나 개선 여지가 없어 타 자치구 비해 처우개선이 열악해 필요한 지원정책을 발굴하여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건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방역과 종교단체 점검 및 재난지원금(정부, 서울시) 신청과 이의신청 접수, 임시선별진료소 지원근무, 백신접종센터지원 등으로 동 주민센터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어 직원들의 휴식이 필요 동 직원들에게 특별휴가 부여를 건의함.

건의) 친환경콘덴싱 보일러 보급 사업은 지원금이 전반기에 모두 소진되어 다수의 주민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사업 수요에 맞는 적극적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해주기 바람.



■ 박철성 의원

건의) 구로시장은 남구로시장에 비하여 접근성이 떨어져 시장을 방문하여도 주차 할 곳이 없어 발길을 돌려, 가리봉시장의 공영지하주차장 건립사업을 벤치마킹해 인근 토지를 매입, 청년임대주택을 짓고 구로시장 공영지하주차장도 함께 건설하는 사업 추진을 건의함

건의) 낙후된 가리봉동의 현실을 파악하여 타 지역과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가리봉동을 향한 시급성이 될 수 있는 영역이 될 수 있도록, 용도상향의 논리 개발과 주변지역과의 역사성, 정책으로 인한 주민 피해 등의 복합적인 요인들을 면밀히 검토, 7월 주민설명회에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건의함.



■곽윤희 의원

건의) 쓰레기 무단투기 관제 위한 카메라의 화각은 약 55도로 관제방향이 제한적이고 감시 각을 이탈하여 쓰레기를 무단투기 할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360도 관제 가능한 고성능 CCTV를 설치해 주기 바람.

건의) 온수동 온수골사탕타마를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코로나19로 시설수요의 감소로 공공요금 미납되는 일이 잦아, 자립운영에 어려움이 판단함.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및 운영의 근본적 취지인 자립 운영을 위해 담당부서의 주민공동이용시설 개선 계획 수립을 요청함.

우수) 녹색도시과는 안양천을 공유하는 구로, 영등포, 양천, 금천, 광명, 안양, 군포, 의왕 등 8개 지자체가 안양천을 명소화·고도화 시키자는 목적으로 지난 5월11일 안양천 생태초화원에 모여 협약식을 가졌음. 구로구가 지난 3년간 안양천 수목원화 사업의 성과로 인근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고,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었기에 우수사례로 선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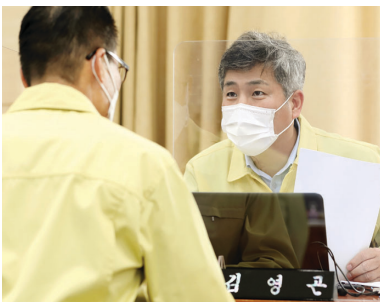


■김영곤 의원

시정) 마을버스 운수업체의 운영난을 해소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는 운수업체에 대한 우선적인 재정지원과 마을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광역-기초단체간의 실무적인 논의 구조를 마련할 것을 요구함.

시정) 주택과는 관내 민간임대주택 대규모 단지의 증가와 함께 임차인의 집단민원 발생과 임차인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구청 주택과가 함께하는 '임대주택상생협의회' 구성과 같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기대함.

시정) 구청 교육지원과는 '구로구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구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필요와 시급성을 고려하여 '협의회 구성을 위한 공론장'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한 구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적극행정을 펼칠 것을 요구함.



■정대근 의원

건의) 코로나19가 2년간 이어지면서 정부와 지자체 등이 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범위 밖의 중장년층과 취업을 포기한 채 지내는 20·30대 청년층 등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상담 프로그램 제공, 재정적 지원, 일자리 마련 등의 정책을 시행해 주기 바람.

건의)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올해 6월 30일 기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민간전문인력 채용,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등 새롭게 시행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구로구서 내용들을 꼼꼼히 챙겨 빈틈없는 아동학대 예방시스템을 만들어 주기 바람.

건의) CCTV는 기술의 발달이 빨라 설치 후 몇년만 지나도 신제품에 비해 성능과 해상도가 떨어짐. 설치 후 불과 5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본연의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 낡은 CCTV는 빠르게 고도화 하고 신규 설치할 기술 발전을 예상한 고성능, 고해상도의 CCTV 설치가 필요함. <정리=채홍길 기자>



■김희서 의원

시정) 광명서울지하고속도로는 지역 민원이다. 안전, 주거권, 교육권 등 불 때 주민들의 요구를 정부에서 노력을 해야 함. 현 위치에 수직구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공사비 절감을 목표로 주민들 안전을 빼앗겠다는 것임. 주민 요구 수용을 구청,구청장부터 나서야 할 것임.

시정) 오류시장의 시장정비사업이 시장정비사업답게, 또 지역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구로구청이 행정적 점검과 조치를 취하고, 지역상인 및 주민들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임.

건의) 최근 2~3년간 오류2동, 천왕동, 향동지역에 항공기 소음 민원이 증가 추세로, 최근에는 급증하고 있음. 주민, 구청환경과, 공공항공사가 참여하는 항공소음대책 회의를 마련하고 문제 해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함.



2021.5.11.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3배로 상향됩니다.

● 과태료 금액 : 승용차 8만원 → 12만원 / 승합차 9만원 → 13만원

☎ 서울구로구청장 . 서울구로경찰서장

구로구의회 박동용 의장,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시정 요구 51건·건의 72건·우수사례 87건 등 量質서 ‘성과’

구로구의회 의장 박동용입니다. 제302회 서울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주민을 대신해서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활발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19 확산세가 연일 지속되어 지치고 바쁜 가운데서도 9일 간의 짧은 기간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분야별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덕분에 구로구가 더욱더 발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감사위원들이 효과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였다.



제30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치고 의원 14명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행부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출석 공무원을 필수인원으로 최소화하고, 동 주민센터의 감사를 간소화 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서면으로 대체하였으며, 일정 간소화를 통해 관계 공무원들

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대면접촉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 진행하였으며, 총 210건의 감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이 중,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51건, 건의사항이 72건, 우수사례가 87건 채택 되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활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영세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로사랑 상품권 발행, 지역상품 우선구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 구로구만의 특색 있는 정책을 발굴 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노력에 대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수사례보다 시정 및 건의사항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구로구의 발전 방향과 대안을 찾고자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시정 및 처리요구한 사항, 건의사항으로 제시한 부분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편의 위주의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 및 보완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

향후에도 행정사무감사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민의 소리를 잘 전달하고, 집행기관이 올바른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노력하겠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김유권 기자>

행정기획위원회 이명숙 위원장 강평

“구로문화재단 대표이사 불성실한 태도, 조치 취해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명숙의 원입니다. 금번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많은 구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과 향후대책, 지역경제 살리기와 재정운영의 건전성, 구민 숙원사업과 구민 불편사항 해소 노력 등 구민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구정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코로나 19 때문에 감사 활동이 어려웠지만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현장 활동과 공개질의를 통해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했다.

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님들의 감사보고서는 총 102건이 제출되어, 이 중 25건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33건은 건의사항으로, 44건은 우수사례로 채택하였다.

먼저, 코로나 19 장기화로 청년일자리는 물론 중장년 일자리도 부족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구로시장 청년몰, 천왕역 청년이룸, 동양미래 대학교 메이커스 캠퍼스 등을 둘러본 결과,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상인과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은 만족할 만한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으며, 특히 청년몰의 경우에는 17개 점포 중 7개 점포가 입점한 상태여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지역

상품 우선구매, 구로사랑 상품권 발행,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자금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 각종 정책들을 추진함에 있어 더욱 내실을 기하여주시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발굴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있지만,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앞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한다 하더라도, 지금도 대두 되고 있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와,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태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현재 보건소나 동 주민센터 직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이 지쳐 있다. 따라서 현재의 조직 체계로는 이에 대한 대비가 어렵다고 본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감사활동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중요한 법정 업무 중 하나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건의하고, 잘된 점은 우수사례로 전파 하는 등 각종 정책에 구민의 뜻을 반영하고, 구로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그런데 이번 감사 기간 중 구로문화재단 대표이사의 불성실한 태도는 감사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일로 집행부는 반드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한다.

상호 협력의 좋은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은 당사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하여 구민 행복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홍길 기자>

복지건설위원회 최숙자 위원장 강평

“사물인터넷 활용 노후건축물 예·경보서비스 ‘모범사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숙자 의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9일간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

건설국, 미래발전기획단, 시설관리공단, 구로희망복지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건, 건의사항 38건, 특기사항 및 우수사례 42건 등 총 105건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다. 조류충돌 저감 조례가 2019년 8월에 시행되었지만 이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학교폭력에 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도 올해 3월 제정해 즉각적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구성을 요구했지만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

본의원이 지난해 298회 정례회에서 자유발언으로 요구했던 도립천역 역명 변경에 관해서도 진행상황을 보고 받지 못했다. 백산빌라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광명서울지하고속도로, 오류시장 등에 대한 내용도 몇 년째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외에도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의 동의율 문제, 구청 주관 요리프로그램 원산지 표시, 구청 청소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 장애통합어린이집 치료사 및 간호사 열악한 처우, 우마길 문화의 거리 조형물 어두운 조명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전담 선생님 지정,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융통성 있는 집행, 코로나19 사각지대 적극 발

굴, 360도 관제 가능한 CCTV 설치로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현실화, 을지역 녹색공간 확보, 노숙인 단속 및 관리 강화, 외국인 아동 보호료 지원, 전동킥보드 보관소 설치, 구로시장 주차장 건설 등의 내용이 있었다.

또한 동과 관련해 가리봉동 우마길 CCTV 설치, 오류1동 주민커뮤니티 시설과 복지시설 설치, 오류2동 도서관 설치, 구로1동 백신접종 병원 추가 지정, 수궁동 온수초 일대 보행로 설치, 동 직원들 코로나 지원업무 과다 해소 등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우수사례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전통시장 내 상점의 위치와 상품을 가상공간 형태로 구현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타격 받은 상인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마트도 시과의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노후건축물 예경보서비스는 건물 붕괴에 대한 사전 감지를 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로도 확대 추진되었다.

초등원격학습 지원 구로마을학교, 백신접종자 대상 경로당 개방, 동별 비대면 경로의 달 행사 추진, 평생학습프로그램 온라인 전환, 시설관리공단 비대면 스마트 주차 서비스 확대 등은 코로나19 시대에 현명하게 대처한 행정 사례였다.

이외에도 아동보호체계 구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한부모가정 이산화탄소 경보기 무료 보급,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경사진 거주자우선주차장 고임목 대여, 천왕산 생태숲 조성,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개선, 향동어린이집 통학차량 관련 운행중단 고질 민원 해결, 구로1동 마을지도 제작, 동 자체 홍보물 제작으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서 큰 성과를 이룬 구로2동 등 많은 우수사례가 있었다.

<채홍길 기자>

제9회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 7월1일 개막

개막식 오후 6시 '영화제 유튜브 공식채널' 통해 온라인 공개
 '다시 그리는 세대' 슬로건... 7일까지 온-오프라인 동시에
 장-단편 187편 '씨네큐 신도림' - '신도림 오페라하우스' 서상영

제9회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가 오는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된다. 금번 9회 영화제는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얻었던 경험과 노하우를 반영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 속에 7일간의 알찬 영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되었다.

온라인 상영관 및 온라인 프로그램은 물론, 철저한 방역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한 상영관 운영과 그에 대응한 다채로운 오프라인 행사 역시 차질 없이 준비 중이다.

국내 유일의 어린이영화축재인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는 어린이가 영화를 통해 꿈과 희망을 펼치고, 세대 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3년에 시작됐다.

올해 9회를 맞이한 이번 영화제의 슬로건은 '다시 그리는 세대(RE-gathering our generation)'이다.

올해 영화제는 전 세계 98개국 2,130편의 공모작 중에서 40개국 187편의 작품을 엄선하여 그 주제에 맞게 섹션별로 구성했다.

개막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개막선언, 영화 관람 가이드 등 사전 제작된 개막식 영상이 7월 1일 오후 6시 영화제 유튜브 공식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공개된다.

공식상영관에서도 개막작 상영 전에 영상으로 공개된다. 개막작은 16세의 환경운동가로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레타 툰베리의 실화를 담은 다큐멘터리 '그레타 툰베리'가 선정돼 씨네큐 신도림에서 상영된다.

한 여름밤, 시원한 야외에서 가족들이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야외상영회인 '구키프 무비나잇'도 올해 처음 선보인다. 7월 3일 저녁 8시 신도림 테크노공원에 위치한 신도림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리는 '구키프 무비나잇'에서는 이대희 감독의 장편 애니메이션 <스트레스 제로>와 김경수 감독의 단편 <MaB: Machinegun and Blade> 그리고 이채영 감독의 단편 <피자 걸>까지 총 세편의 애니메이션을 상영한다.

한편 전 세계 영화시장이 크게 위축되었음에도 전년도 대비 작품 수가 13% 이상 증가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공모작 수가 증가하고 있기에 국제적으로 높아진 영화제 위상에 맞게 경쟁작 심사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국내외 영화관계자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온라인 작품심사를 거쳐 섹션별로 수상작을 선정한다. 심사위원장은 영화사 트리플 픽처스 대표인 강기명씨가 맡았다.

특히, 금년 영화제에서는 어린이영화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어린이영화제작지원사업인 '구키프 콘텐츠 랩'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제9회 영화제는 출품작 중에 선정된 작품과 초청작 등 187편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각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만나볼 수 있다. 장편 42편, 단편 145편의 작품이 씨네큐 신도림과 신도림 오페라하우스에서 상영된다. 공식 상영관인 씨네큐 신도림에서는 주중 7,000원, 주말 8,000원에 관람할 수 있으며, 특별상영관인 신도림 오페라하우스는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한 저연령층을 대상으로 각 유치원의 사전접수 방식으로 무료 운영된다.

영화제 측은 상영관별 관객수를 전체좌석 수 대비 50% 이내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또한 방역관리자를 배치해 모든 입장객을 대상으로 발열체크와 문진표를 작성하며 매 상영 후 소독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으로도 영화 관람이 가능하다. 공식 상영작 36편을 영화제 공식 홈페이지(<https://www.gukiff.kr>) 및 온라인 전문상영관 무비블록(<https://www.moviebloc.com>)을 통해 유료 상영작 및 무료상영작을 만나볼 수 있다.

영화제는 7일 저녁 폐막식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신도림 테크노마트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폐막식에는 수상자와 시상자, 영화 관계자 등 사회적거리두기를 준수하여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다. 화려한 행사를 지양하고 해외 영화제 관계자의 축하 영상, 본선 주요작품 하이라이트, 시상식 등으로 내실있게 꾸며진다. 폐막작은 아이들의 성장기를 그린 이지원 감독의 '아이들은 즐겁다'가 선정됐다. <채홍길 기자>



제9회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가 오는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된다. 올해 영화제는 전 세계 98개국 2,130편의 공모작 중에서 40개국 187편의 작품을 엄선해 상영한다. <사진은 지난해 제8회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 폐막식>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 김한기 집행위원장 인터뷰

“코로나19 불구 출품작 13% 늘어, 영화제 위상 높아져”

▲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가 올해 벌써 제9회 대회다. 이제 국내외서 인지도 받았다. 구민에 한 말씀을...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는 구로구 유일한 국제행사다. 구로구에 처음으로 태동한 본 영화제가 제자리를 잡기까지 여러 어려움을 겪었고 현실적인 부침으로 인해 난항도 있었지만, 현재의 위상을 확립하고 국제적인 명성을 얻는데까지 많은 이들의 노고와 특히, 구로구민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9년째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를 개최하는 집행위원장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코로나19 관계로 개막식 등 온라인 행사가 예상 되는데...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모두가 고통을 받았고,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혼란과 어려움을 야기했다. 영화제를 준비하는 저희도 동일하게 어려움에 직면했다. 하지만 작년 코로나19 사태로 얻었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금번 제9회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는 보다 내실 있고, 그에 걸맞는 대응방안을 준비할 수 있었다.

이런 준비를 통해 제9회 영화제는 온라인 상영관 및 온라인 프로그램은 물론이거니와 철저한 방역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한 상영관 운영, 그에 대응한 다채로운 오프라인 행사도 차질 없이 준비 중이다. 또한, 코로나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구민들에게 혜택을



어린이영화제'라는 확고한 명제와 주제의식이 필요한 '특성화영화제'다. 따라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영화제' '어린이에 의한 영화제'는 물론 '어린이를 위한 영화제'라는 것이야말로 본 영화제 존립의 진짜 거대한 주제이자 사명이라 할 수 있겠다.

이에 따라 올해 영화제의 슬로건을 '다시 그리는 세대(RE-

gathering our generation)'로 정했고, 현재 코로나19 및 난민, 기아, 질병, 아동학대 등으로 고통 받으며 그 존재를 잃어가고 있는 전 세계 어린이들의 '회복'과 '치유'를 염원하며 금번 영화제를 준비했다. 그리고 제일 가장 큰 숙원사업인 '서울-평양 국제어린이영화제'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자 북한어린이지원단체인 '어린이어깨동무'와 연대하여 북한관련 영화 상영은 물론 '어린이 어깨동무와 함께하는 남북교류전'도 기획했다.

▲ 영화제 출품작과 출품국은 지난해와 어떤가?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인해 영화제작을 포함, 전 세계 영화시장이 70% 급감했다는 뉴스를 듣고 가슴이 아팠다. 따라서 예년과 달리 출품작 역시 감소하리라 생각했는데, 그 예상을 뒤엎고 전년 대비 출품작이 13% 증가해 98개국 2,130편이 출품됐다. 이 역시, 본 영화제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이 아닐까 여겨지며 출품해 주신 모든 감독과 제작사에게 감사를 표한다.

▲ 이번 제9회 영화제 관련 역대 대회와 다른점이 있다면...

올해는 본 영화제가 본격적인 '국제영화제'로서의 견고한 자리매김을 하는 또 다른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영화제는 여타 영화제와 달리 '어린

이들이

이들이

신도림새마을금고 '사회공헌 대상 우수상' 수상

전국 1,400여개 지점 중 '모범 점포'로 선정
예금고 1천6백억에 15,000명 조합원 '똘똘'
문화·복지·후생 등 '사회공헌사업'에도 앞장

'찾아가는 금융, 함께하는 금융'을 모티브로 하는 MG신도림새마을금고(이사장 최재무)가 지난 25일 MG 창립 58주년을 맞아 TV개국 기념식이 열린 MG새마을금고 중앙회 강당에서 전국 1,400여개의 새마을금고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2021년도 사회공헌 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MG신도림새마을금고 최재무 이사장이 지난 25일 MG 창립 58주년을 맞아 MG새마을금고중앙회 강당에서 열린 '2021년도 사회공헌 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신도림새마을금고는 지난 1976년 주민 29명이 참석,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여 현재 45년동안 한 자리에서 '지역금융 허브'를 지켜왔다.

신도림동 일대는 과거 한국타이어, 삼영화학, 조흥화학, 종근당, 대성연탄 등의 공업지역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공장지대에서 아파트 대단지와 고층빌딩이 들어서고 2012년 도시환경정

비구역 지정 이후 재개발이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하여 잘 정돈된 아파트 단지와 오래된 소규모 공장들과 식당, 연립주택이 난립하여 이질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으로 은행·농협 등 기타 금융기관이 10여개 분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이 일심 단결하여 자산 예금고 1천6백억원에 1만5천여명의 조합원과 함께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신도림새마을금고로 자리 매김을 했다.

특히 신도림새마을금고는 최재무 이사장이 부임하면서 문화·복지·후생사업으로 요가교실, 골프동우회, 회원 교육 사업으로 노래 및 통기타교실, 시니어 스마트폰교실, 지역사회개발 사업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쌀값의 공동구매, 새마을 방역비 지원, 따뜻한 마음 청소년센터 지원, 희망나눔 사업으로 금융교실, 저출산 극복 지원사업, 신도림동장학사업·사랑의 줌도리운동을 펼쳐 오며, 사회공헌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시니어스마트폰 교실은 지난 2016년부터 개강하여 노년층의 스마트폰을 통하여 빠르고 간편하게 금융상품을 접할 수가 있고, 일상화가 된 스마트폰의 기초적 사용방법을 알려 드리고 있다.

또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MG신도림새마을금고 봉사단을 30명으로 꾸려 '마음을 나누다'란 슬로건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민반찬 나누기운동, 700여명에게 삼계탕 나눔봉사 등을 펼쳐 오고 있다. 그리고 우리 농촌돕기운동의 일환으로 전남 신안소금을 산지에서 직송으로 쌀값에 판매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신안소금은 일본의



최재무 신도림새마을금고 이사장이 2019년 여름 지역어르신을 초청 여름나기 삼계탕 나눔행사를 가졌다.

유희상의 열린 칼럼



'양반도 술을 마시면 개가 된다'는 말처럼, 술을 많이 마시면 자칫 이성을 잃어 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음주예절이 있다. 술자리에도 상식이 있다. 술자리에서 상식이라고 하면, 대개 방 아랫목이나 벽을 등지고 출입문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상식이 되는데, 웃어른을 상식에 권하여 앉으시게 한다. 술을 잘 마시지 못한다 하더

진 잔의 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량을 미리 알고 적절하게 마심이 중요한 것이다. 차를 마시는 법인 다도(茶道)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술을

한국인의 음주문화 ㉑

라도 술자리에 참석한 이상 첫잔은 받는 것이 예의이다. 이것을 첫잔배라고 하는데 첫잔부터 술잔받기를 거절하면 술자리의 분위기를 해치게 된다. 술을 마시는 적당한 양에 대하여는 '일불(一不), 삼소(三少), 오의(五宜), 칠과(七過)'라 하여, 한잔 술로 끝나는 법이 없다. 석 잔 가지고는 부족하며 다섯 잔 이라야 알맞되 다만 일곱 잔이 과음이 되니 먹지 말라는 것이다. 적당한 술이란 미리 정해

마시는 주도(酒道)도 있다. 어른이 술을 권할 때 일어서서 나아가 절을 하고 술잔을 받아야 한다. 어른이 관찮다고 만류할 때 야 제자리에 돌아가 술을 마실 수 있다. 어른이 잔을 들기 전에 먼저 마셔서는 안 된다. 또한 어른이 주는 술은 사양하지 않는다. 어른이 술잔을 주면 두 손으로 공손히 받고, 어른 앞에서 함부로 술 마시는 것을 삼가 뒷목을 뒤로 돌려 술잔을 가리고 마시기도 한다. <본지 회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인기가 많다. 한편 신도림새마을금고에서는 조합원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제

공하기 위하여 여러곳의 모아치과 등 업체와 신도림동사무소 등 기관이 함께 MOU를 체결하고 많은 혜택을 주고있다. <김유권 기자>

정백리 차지철

누가 차지철에게 돌을 던지랴!

김유권 지음
문학/사육만 양장/ 325쪽/ 값12,000원/ 발행일 2013년 3월 5일

제9회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

○ 일시 : 2021.7.1.(목) ~ 7.7.(수)
○ 장소 : 씨네Q 신도림/ 신도림 오페라하우스
○ 예매 : 씨네Q 신도림 예매 사이트(www.cineq.co.kr)통해 예매

구키프 무비나잇(야외 상영회)

○ 일시 : 2021.7.3.(토) 20:00
○ 장소 : 신도림 오페라하우스 야외상영관
○ 상영작 : 엠에이비: 머신건 앤 블레이드 / 피자걸/ 스트레스 제로
○ 예약 : 영화제 홈페이지(www.gukiff.kr) 통해 무료 신청 *선착순 99명

온라인 상영관(무비블록)

○ 일시 : 2021.7.1.(목) ~ 7.7.(수)
○ 주소 : www.moviebloc.com
○ 상영작 : QR로 확인

“더위야 물렸거라 ‘이웃사랑’ 나가신다”

성금·장학금·쌀·밀반찬·의류·삼계탕 지원 등 줄이어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구로구의 이웃사랑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우리아이들병원(이사장 정성관)이 1,500만원을, (주)글로벌금융판매(대표이사 김민규, 김종선, 이건)가 백미(10kg) 290포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기부했다.

또 16일에는 에덴복지재단(이사장 김학수)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한 세계 1,240세트를 전했다. 세계는 장애인 시설, 취약계층에 전달됐다. 9일에는 구로구 약사회(회장 노수진)가 영양제 1,000개를 기탁했다. 물품은 지역 아동센터와 키움센터에 전달됐다. 7일에는 (주)이레에이치앤씨(대표 나상길, 이병훈)가 남성내의 상하의 150벌을 기부했다. 기부된 물품은 장애인, 노숙인 시설에 지급됐다.

무더위 속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연일 애쓰고 있는 백신 예방접종센터 종사자들에게도 응원이 이어졌다.

15일 (주)온리정보통신(대표 김서규)이 백신 예방접종센터 1호점(구민회관)과 2호점(오류문화센터)에 햄버거, 콜라 등을 전달했다. 신도림동에 위치한 (주)온리정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구로구의 이웃사랑이 이어지고 있다. 김학수 에덴복지재단이사장(오른쪽)이 지난 16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한 세계 1,240세트를 이성구청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보통신은 2010년부터 장학금, 후원금, 마스크 등 꾸준한 기부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3일에는 남현교회(담임목사 윤영배)가 백신 예방접종센터 2호점(오류문화센터)에 샌드위치, 우유 등을 전했다.

동별로도 나눔 행렬이 이어졌다.

23일 구로3동 새마을부녀회(회장 남영미)가 김치, 불고기 등 밀반찬을, 18일에는 구로1동 적십자봉사회(회장 최현숙)가 삼계탕을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16일에는 신도림동 자원봉사캠프(회장 서춘희)가 관내 나눔가게인 도

야미리(대표 최홍창)와 뚜레쥬르 신도림태영점(대표 고용길)의 후원을 받아 홀몸어르신에 밀반찬과 빵을 전달했다.

15일에는 가리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원희)가 저소득 가구에 미숫가루와 물병을, 13일에는 대한적십자사 오류2동 분회(회장 김화분)가 직접 만든 밀

반찬과 열무김치를 저소득 어르신과 취약계층에 전했다. 12일에는 구로1동 자원봉사협력단(단장 최형규)이 관내 취약계층에 김치를, 11일에는 개봉2동장학회(회장 신재곤)가 장학금 9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김유권 기자〉

사회적경제 창업 경진대회 개최

주민, 구 소재 학생·직장인, 초기 창업자도 참여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접수

구로구가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사회적경제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구는 “지역 사회문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하는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창업 경진대회를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구로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센터장 이항자) 주관으로 구로구와 구로사회적경제창업지원센터가 힘을 모아 진행한다.

참가자격은 구로구에 거주하거나 구로구 소재 학교, 직장을 다니는 개인 또는 단체다. 공고일 기준 1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도 지원 가능하다. 신청분야는 문화·예술, 생활·환경, 돌봄·의료, 도시재생, 미래산업 등이다.

사회적경제 창업 경진대회 참여

를 원하는 경우 구로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gurosen.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guroesc@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심사로 진행된다.

전문 심사위원회의 서면심사를 통과한 대상자에게는 사업계획서 작성과 발표심사를 위한 구로사회적경제창업지원센터의 멘토링 서비스가 제공된다.

발표심사는 8월 18일 개최될 예정으로 멘토링 서비스를 통해 작성된 최종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구로구는 최종 수상자에게 내년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사전 선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과 컨설팅도 지원해 실질적인 창업을 도울 예정이다. 또한 구로구 사회적경제발전기 입주 공모 시 가점도 부여한다.

〈채홍길 기자〉

무더위 취약계층에 냉방용품 지원

저소득층 801가구 대상 선풍기·여름이불·대자리 등 제공

구로구가 어르신, 저소득가구 등 무더위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냉방용품을 지원한다.

앞서 구로구는 냉방용품이 없거나 낡아서 교체

가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냉방용품은 지난해 구로나눔네트워크(구로구·구로희망복지재단·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접수된 이웃 돕기 성금으로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801가구로 선풍기, 여름이불, 대자리, 휴대용 선풍기, 양산 등 냉방용품 중 1개 품목이 지급된다.

물품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배분되며, 거동이 불편한 주민에게는 복지플래너, 찾동간호사 등

복지 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전달한다. 물품 전달과 함께 무더위 취약계층에게 여름철 건강관리 방법을 안내하고 안부 전화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8일 구청 르네상스홀에서는 무더위 취약계층 냉방용품 전달식이 있었다. 이성구청장을 비롯해 김한기 구로니어로즈클럽 회장, 오승주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이상덕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채홍길 기자〉



지난 18일 구청 르네상스홀에서 무더위 취약계층 냉방용품 전달식을 가졌다. (사진 왼쪽부터 이상덕 회장, 김재숙 총무, 김한기 회장, 이성구청장, 오승주 사무국장)

주관: 구로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협력: 구로구·SE일때위사회적협동조합

2021 지역을 바꾸는 특별한 생각 사회적경제 창업 경진대회



지역사회 문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성장하고자하는 (예비)창업자 발굴을 위해 아래와 같이 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참가자격

- 구로구에 거주하거나 구로구 소재 학교, 직장을 다니는 자(팀)
- 구로구에서 1년 이내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이 가능한 자(팀)
- ※ 위 항목 중 1개는 충족되어야 함.
- ※ 공고일 기준 1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기업)도 지원 가능

시상특전

- 창업 아이디어 우수자(팀) 시상금 지급
- 2022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사전선발 참여기회 제공(교육, 컨설팅 지원)
- 사회적경제발전기 입주 시 가점 부여

시상내역

구분	시상금	비고
대상(1인)	200만원	은누리상품권
최우수상(2인)	100만원	
우수상(2인)	50만원	

접수&문의

- 신청접수: 2021년 7월 01일 ~ 07월 20일
- 경진대회: 2021년 8월 18일
- 문의: 구로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실장 최범용
- 전화: 대표 02) 3666-9845 직통 070) 4922-1102
- 접수: guroesc@gmail.com



‘6·25전쟁 제71주년·호국보훈의 달’ 기념식 개최

구로5동 거리공원 참전유공자 기념비 앞에서 각계 인사·보훈단체 회원 등 90여명 참석



구로구 '6.25전쟁 제71주년 및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가 지난 23일 오전 10시30분 구로5동 거리공원 참전유공자 기념비 앞에서 각계 인사와 보훈단체장 및 회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구로구 '6·25전쟁 제71주년 및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가 지난 23일 오전 10시30분 구로5동 거리공원 참전유공자 기념비 앞에서 이성 구청장, 박동웅 구로구의회의장, 양홍준 서울남부보훈지청장, 김재식 국민의힘 구로갑당협위원장, 장인홍 서울시의원의원 등 각계 인사와 이흥균 구로 6·25참전유공자회장, 김현수 구로보훈단체협의회장, 박종명 구로구재향군인회장 등 보훈단체장 및 회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구로구청 서해경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장의 사회로 △국민 의례 △내빈 소개 △노

범 6·25참전유공자 표창, 유공단체 감사패 △6·25 71주년 동영상 시청 △기념사 및 인사말 △기념공연 △6·25의 노래 초청가수 5인조 하모니이즈 독창(참석자는 태극기 흔들기)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6·25전쟁 71주년 기념행사는 구로구가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지킨 참전유공자와 호국영웅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참석인원을 대폭 축소하고 비말 감염을 막기 위해 애국가와 6·25 노래는 초청 가수 독창으로 진행했다. 또한 참석자 발열체크, 좌석 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도 철저히 준수속에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이성 구청장이 모범 국가유공자 23명과 유공단체 4명에게 표창 및 감사패를 수여했다.

다음은 유공자 구청장 표창과 감사패 수여자 명단이다.

◇유공자 구청장 표창

- ▲최영왕(광복회) ▲김종웅(광복회) ▲이상의(상이군경회) ▲고병열(상이군경회) ▲김인호(전물군경유족회) ▲성흥제(전물군경유족회) ▲한홍분(전물군경미망인회) ▲한선자(전물군경미망인회) ▲이훈재(무공수훈자회) ▲이종출(무공수훈자회) ▲방순식(고엽제전우회) ▲강형세(고엽제전우회) ▲윤정섭(6·25참전유공자회) ▲민영주(6·25참전유공자회) ▲이정량(6·25참전유공자회) ▲주식남(6·25참전유공자회) ▲이광일(6·25참전유공자회) ▲김양규(월남전참전자회) ▲김상봉(월남전참전자회) ▲지희용(월남전참전자회) ▲신명진(국제로터리3640지구) ▲오창현(서울구로로터리클럽) ▲황주하(서울구로로터리클럽)

◇유공자 구청장 감사패

- ▲최용희(광복회) ▲박이수(상이군경회) ▲이순애(전물군경미망인회) ▲김한기(구로구사회복지협의회장).

〈채홍길 기자〉

“영원한 구로가족으로 기억 하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 퇴임식 23일 구청 창의홀서 개최

구로구가 2021년 상반기 퇴임식을 지난 23일 구청 창의홀에서 진행했다.

이날 퇴임식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퇴직자와 이성 구청장, 구청 간부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다.

행사는 공로패 수여, 구청장 인사, 퇴임자 대표 답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성 구청장은 “공직에 몸담으며 열정과 헌신으로 구민들을 위



지난 23일 구청 창의홀에서 열린 구로구 공무원 2021년 상반기 퇴임식. 이성 구청장과 퇴직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 일해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제2의 인생을 위한 출발선에 선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한다”고 인사했다. 〈채홍길 기자〉

구로다나병원 제2대 김상임 이사장 취임

개봉동에 위치한 의료법인 다나의료재단 구로다나병원 이사장 이취임식이 지난 6월 22일 열렸다.

이날 이·취임식은 제1대 변주선 이사장(1997.3~2021.6)에 이어

제2대 김상임 이사장이 취임했다.

구로다나병원은 2014년 9월, 구로성모병원을 구로다나병원으로 재개원, 정신건강의학과를 신설해 지역사회와 정신건강 지킴이와 정신건강 파수꾼으로 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마음의 상처, 정신질환 등을 치료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으로 구로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 향상과 지역의 정신건강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하고 있는 전문병원이다.

변주선 전임 이사장은 “지난 24년 동안 병원 운영을 위해 도와주신 모든 병원 임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밝히고 “신임 김상임 이사장과 함께 병원 발전



개봉사거리에 위치한 의료법인 다나의료재단 구로다나병원 이사장 취임식이 지난 22일 열렸다. 이·취임식은 제1대 변주선 이사장에 이어 제2대 김상임 이사장이 취임했다.

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상임 신임 이사장은 “지금까지 함께 힘썼던 직원들께 감사드리고, 변주선 전 이사장님과 대림성모병원 김광태 회장님의 발창에 따라 병원의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상임 신임 이사장은 구로소방서 의용소방대 여성대장을 연임했으며, 현재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 대의원, 구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로경찰서 청소년육성회 구로지회 명예회장, 한국청소년육성회 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김지현 개봉1동 시민기자〉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립니다”

유공자·유족 등 대상 ... 올해 총 742명 11월까지

구로구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실시 중이다.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2019년부터 국가보훈처와 함께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명패는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



구로구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실시 중이다.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2019년부터 국가보훈처와 함께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방문 부처가 원칙이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우편 등의 전달방식을 병행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명패 부착 대상자를 국가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을 포함해 확대 시행한다. 전물군경 유족 272명, 전상군경 유족 365명, 순직군경 유족 94명, 재일학교의 용공인 유족 2명, 4·19, 5·18 민주유공자 유족 3명, 특수임무 유

족 6명 등 총 742명이 대상이다.

지난해에는 참전유공자 1,299명, 무공수훈자 46명, 보국수훈자 185명, 4·19 공로자 1명, 5·18 희생자 7명, 특수임무공로자 9명 등 총 1,547명을 대상으로 276명에게는 방문해 부착했으며, 직접 전달이 어려운 유공자에게는 우편으로 전달했다.

2019년에는 국가유공자 1,199명, 독립유공자 유족 62명, 민주유공

자 7명 등 총 1,268명의 집에 명패를 부착했다.

구로구는 지난 16일 전물군경유족회 지회장 신덕례 씨 자택을 방문해 명패를 부착했다. 신덕례 지회장은 “해마다 6월이 되면 돌아가신 아버지가 더욱 생각난다. 명패가 때문에 부착된 것을 보니 나라를 위한 아버지의 헌신이 더 자랑스럽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구는 이날 방문을 시작으로 올해 11월까지 명패 부착을 완료할 계획이다. 문의) 구청 복지정책과 860-3068. 〈김유권 기자〉

민주평통 구로구협의회 ‘행복 나눔 사랑의 빵 나누기’ 행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로구협의회(회장 이학만)는 지난 6월 17일 오후 3시 구로경찰서에서 ‘행복 나눔 사랑의 빵 나누기’를 개최했다.〈사진〉

코로나19 여파로 몸과 마음이 힘든 요즘, 다함께 건강

하게 이겨내고 조금이나마 위로와 행복이 되고자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직접 손수 만든 사랑의 빵꾸러미 30개를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행복 나눔 사랑의 빵 전달식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했으며, 민주평통 구로구협의회 이학만 협의회장, 임경우 구로경찰서장, 구로구청 자치행정과 사창수 팀장이 각각 북한이탈주민 대표 3인에게 전달했다. 〈김유권 기자〉

구로구민 1차 백신접종률 28.6%

접종부작용 신고도 늘어 누적 사망 4건 등 모두 584건

구로구 관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백신 접종 부작용 신고도 늘어나고 있다.

현재 관내 만18세 이상 내·외국인을 포함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는 약 33만 5천여명이다.

이 가운데 지난 6월 27일 현재 만 60세 이상 어르신 등 1차 접종을 마친 주민은 11만7,198명으로 접종 대상 주민 33만 5천여명의 28.58%가 1차 접종을 마쳤다. 2차 접종을 마친 주민도 2만6,583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접종률은 29.50%다.

현재 접종대상자만 보면 1차 15만2,669명 가운데 11만7,195명이 접종을 마쳐 77%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접종률은 평균 81.0%다.

이와 함께 부작용 신고도 늘어나 지난 3월 첫 백신 접종 이후 관내 백신 부작용 건수는 사망 4건 등 모두 542건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지난 5월 27일 일반 병의원을 통해 잔여백신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받은 30대 남자가 지난 6월 16일 숨졌다. 숨진 30대 남자는 백신을 맞은 후 9일이 지

난 6월 5일 심한 두통과 구토 등 이상 증세를 보여 의료기관에서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종합병원으로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판정'을 받아 지난 16일 숨지는 등 구로관내 사망자는 모두 4명으로 늘었다.

구로보건소가 밝힌 백신 부작용 신고 584건을 증상별로 보면 27일 현재 △사망 4건 △아나필락시스 5건 △기타 5건 △접종후 발열·두통·오한·몸살 등 경미 증상 570건이다. <채홍길 기자>

(주)플메이드, 구로구에 마스크 6만장 기증



마스크 전달식에는 이성 구청장과 (주)플메이드 노미순 회장, 이원일 대표이사, 김종수 상무이사, 김한기 영화제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주)플메이드 (대표이사 이원일) 노미순 경영자문 회장이 28일 오후 3시 구로구청 3층 르네상스 홀에서 오는 7월 1일 개막하는 '제9회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에 써 달라고 이성 구로구청장에 KF94 마스크 6만장을 기증했다.

마스크 전달식에는 (주)플메이드 회사측에 노미순 회장, 이원일 대표이사, 김종수 상무이사가 참석했다. 김한기 영화제 집행위원

장도 함께했다. 시가 3천만원 상당의 마스크를 전달한 (주)플메이드는 충북 진천 소재 중소기업으로 마스크 제조업을 하고 있다.

이성 구청장은 이날 전달식을 통해 "마스크는 코로나 예방에 가장 핵심적인 의료물품 이라면서 어려운 구민 및 저소득층들에게 전달하겠다"며 노미순 회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김유권 기자>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누적 1,641명

오류동 A식당-사우나 관련 16명 등 1주일 전 비해 60여명 급증

사망자도 1명 늘어 12명

구로 관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28일 현재 신규 확진자는 오류동 소재 A식당과 인근 오류동 사우나 관련 16명을 비롯, 일주일 전에 비해 모두 60여명이 늘어나 누적 1,641명을 기록했다.

사망자는 치료를 받던 60대 남자가 지난 17일 숨져 모두 12명으로 늘어났다. 지난 4월 5일 11번째 사망자가 발생한지 두달여 만이다.

현재 1,535명이 완치 퇴원, 94명이 치료중이다. 자가격리자는 국내접촉자 381명, 해외입국자 406명 등 모두 787명이다.

한편 구로구민의 감염경로별 확진자를 보면 미소돌요양병원 관련 47명, 오류동 해적집 관련 42명, 구로콜센터 관련 20명, 개봉동 옥(유전)사우나 16명, 구로동 A아파트 관련 14명, 중국동포센터 관련 11명, 만민교회 10명, 성북구 사랑



구로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세로 일주일전에 비해 60명이 늘어 28일 현재 누적 1,641명을 기록했다.(사진은 구로역 광장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제일교회 관련 9명, 신도림동 핀포인트타워(콜센터) 관련 5명, 관악구 리치웨이 관련 5명, 타시군 구 접촉자 1,013명, 해외 입국 14명, 기타(조사중) 432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서울시 전체 확진자는 28일 현재 모두 4만9,407명으로 사망자는 513명이다.

구청별로 보면 ▲강남구가 제일 많은 3,128명 ▲송파구 2,979명 ▲강서구 2,350명 ▲관악구 2,270명 ▲노원구 2,256명 ▲서초구 2,161

명 ▲중랑구 2,142명 ▲은평구 2,111명 ▲성북구 2,037명 ▲동작구 2,029명 ▲강동구 1,981명 ▲영등포구 1,867명 ▲동대문구 1,800명 ▲양천구 1,705명 ▲광진구 1,636명 ▲구로구 1,641명 ▲마포구 1,607명 ▲도봉구 1,485명 ▲성동구 1,407명 ▲강북구 1,400명 ▲용산구 1,377명 ▲서대문구 1,244명으로 22개구가 1천명을 넘어섰다. 이어 ▲금천구 819명 ▲종로구 818명 ▲중구 735명을 기록하고 있다. <채홍길 기자>

7월부터 수도권 6인모임 허용... 15일부터 8인까지

수도권 노래방·식당 등 자정까지 영업 가능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5단계로 운영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조정한다.

1단계는 일일 발생 확진자 수 전국 기준 500명 이하·수도권 250명 이하, 2단계는 전국 500명 이상·수도권 250명 이상, 3단계는 전국 1천명 이상·수도권 500명 이상, 4단계는 전국 2천명 이상·수도권 1천명 이상일 때다.

	수도권(2단계)	비수도권(1단계)
사적 모임	6명까지 (15일부터 8명)	인원 제한 없음
식당·카페	밤 12시까지 영업 (이후 포장·배달)	시간 제한 없음
유흥시설	밤 12시까지 영업	시간 제한 없음
실내체육시설	시간 제한 없음	수용 인원 50%
종교시설	수용 인원 30%	수용 인원 50%
스포츠 관람	실내 30%, 실외 50%	실내 50%, 실외 70%
공연장	5000명 이내	인원 제한 없음
결혼식장	100명 미만	4㎡당 1명
장례식장	100명 미만	4㎡당 1명
학교	전면 등교 (2학기부터)	전면 등교 (2학기부터)

이 분류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8인까지 모임 허용), 비수도권은 1단계(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제한 없음)가 적용이 된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2주간의 '이행기간'을 두고서 이런 완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선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최대 6인, 이후 15일부터는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2단계가 적용되는 동안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등이 24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1단계에 해당하므로 새 지침이 적용되는 1일부터는 인원에 제한 없이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다중시설 역시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해진다.

<김유권 기자>

치매안심센터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 진행

'구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코로나19로 치매안심센터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먼저 구로구는 비대면 인지 프로그램 '기억두드림'을 운영한다. '기억두드림'은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어려워진 치매 어르신들의 인지기능 저하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기억두드림' 프로그램은 구로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참여 어르신들은 실시간 화상수업을 통해 인지·운동·음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ZOOM 앱을 통해 주 2~3회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인지교재를 통한 주 1회 전화수업도 진행하고 카카오톡 채널로 인지강화 퀴즈도 풀 수 있다. 기억을 지키는 일기장도 제공

해 매일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온라인 치매 바로알기' 교육도 실시한다. ZOOM 앱을 통한 화상교육으로 구로구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교육은 매월 둘째·넷째 주 월요일에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며 교육을 통해 치매 바로 이해하기, 천만시민 기억친구 사업 소개 및 활동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다.

구로구 치매안심센터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02-2612-7041~4)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https://guro.seouldementia.or.kr/Default.asp)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상임 지역보건과장은 "치매는 관리에 따라 진행속도를 늦출 수 있고 예방도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민들의 치매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채홍길 기자>

오피니언

효도로 요양원 '순옥이의 일기'

어둠이 깔리기 전, 커튼을 연다. 창문 밖에는 봉신교회 십자가가 코로나의 종식을 기도하는 듯 반짝 반짝거린다.

고척1동 소재 1.2.3전자타운 '효도로 노인전문요양원'에서 요양사와 실장으로 재직하기 시작한지 벌써 3년차다.

요양원의 하루 일과가 주로 치매 어르신들의 안녕을 보살피는 일이다. 효도로 노인전문 요양원에 근무하기 전에는 구로구새마을 부녀회장을 하며 20여년간을 봉사의 길을 걸었다.

"순찰은 생명이요, 필수입니다"를 외치며, 하루해가 시작된다. 지난 해 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스크도 필수가 됐다. 온 세상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닐 줄 누가 알았겠는가. 인류를 가장 많이 죽인 것은 핵 전쟁이 아니라 바이러스이고, 바이러스 보다 더 무서운 것이 치매인 것 같다.

"어머이 여기 앉아 뭐하시나요?" "아들이 오늘 온대!" 화장실 번기에 앉아 동구나무 그늘인 양 아들을 한없이 기다리다 열이 오른다. 분주히 오가는 간호원 손에 해열제를 먹인 뒤 침대에서 잠이 든다. 매일 오던 아들이 이유 없



들을 부르다 잠이 드신다.

또다른 깔끔한 어머이는 아들이 면회 왔다 해도 말기 암 환자의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 싫다며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로 베갯잇을 적신다. 글을 쓰신다는 어머이는 하루해를 잔뜩 움켜쥔 채, 가는 세월이 무척이나 아쉬운 듯 매일 매일 일기를 쓰며 요양사들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기도한다.

또 다른 어르신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서둘러 신발을 신고 약국에 돈 벌러 가야 한다고 한다.

효도로 요양원 하루 세 끼 식사 때가 되면 아수라장이다.

"거가 내 자리다!" "그기 내 밥이다!"

손으로 밥을 입에 넣으며 한 손엔 식판을 밀고 땀기다가 드디어 식판이 땅에 떨어져야만 다름은 끝이 난다. 또 다른 어머이는 늘

이 안 오니 나를 버리고 갔다고 병이 나신 게다. 잠꼬대라도 어머이는 아

입안 가득히 감사하다는 말을 머금고 눈만 마주치면 웃음으로 화답하기도 한다. 그 분은 서운하게도 얼마 전 승천하셨다.

보호자는 요양사인 나에게 마지막 인사말로 "엄마를 오랜 병환에도 욕창 하나 없이 곱게 모셔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도 잊지 않았다 씨감자 처럼 쪼글 거리는 어머이는 혼자서 중얼거리며, 코로나로 인하여 자유로이 보던 아들딸들을 못 보는 분풀이를 이 방 저방 다니며 시비를 걸다가 말다툼을 하기도 한다. 면회가 어려운 요즘, 현대 문명의 도움으로 가족과 영상 통화를 한다.

"엄마 나야~" "엄마! 나야"

몰라보는 엄마를 눈물 콧물로 흘쩍이며 애타게 부른다. 그토록 내 살점 내뉘가며 인류대학 공부시켰건만, 축 처진 눈꺼풀만 깜빡 거린다.

요양원, 이곳으로 오신 어르신들은 어렵게 사는 자식에게 살던 집 모두 내어 주고 정부의 도움 80% 본인 부담금 20% 내며 이곳으로 오셨다. 그 희생이 당연하다는 듯 참고 인내한다.

장기 요양 보험이 없었다면 그 어느 자식 문간에서 서성거렸을 어머이 들! 요양 보험은 각 가정을 구하고 사회를 구하고 요양사들의 일자리를 주었다.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고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가는 바깥세상이 잠잠해지면 옥상 하늘공원으로 모시고 가 봄날을 노래할 것이다.

아니, 나훈아의 흥시를 간드러지게 불러보리라. 울 엄마가 생각이 난다. ♪ ♪ 판다라 판다라 ♪ ♪. <효도로 요양사 실장 박순옥·본지 신도림동 시민기자>

초대시

물꽃들의 환상

- 춤추는 분수

시인 김유권



노즐을 통하여 태어난 시공(時空)

물 분자들의 굿이여!

무가당 유를 창조하는 너는

다원적 예술의 극치다

우울한 도시 속

보헤미안의 타임캡슐에 갇힌 너

지표면의 모세혈관이요

희·노·애·락의 음계

- 한국문인협회회원
- 한국시인협회회원
- 국제펜클럽회원
- KBS드라마작가
- 시집: 배추꽃은 시인의 가슴으로 피지 않는다 외 5권
- 산문 모음집: 달빛이 몸에 박히면 슬보다 더 독하다
- 소설: 아름다웠던 날들 1. 아름다웠던 날들 2. 청백리 차지철 등 있음.

'알기 쉬운 구로 살림살이' 책자 발간

코로나19 관련 예산 등 지난해 재정현황 쉽게 정리

구로구가 '2020 회계연도 알기 쉬운 구로 살림살이' 책자(사진)를 발간했다.

구는 "전년도 재정현황에 대해 쉬운 용어와 그림, 그래프로 살림살이 책자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로 살림살이 책자는 지난해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예산 지출현황을 포함해 구로구 일반현황, 세입·세출 결산 요약, 기금운용 현황, 분야별 주요 지출내역, 재무제표 살펴보기, 재무분석 비교 등으로 구성됐다.

책자는 구청 홈페이지 '열린행정-예산안내-세입/세출결산서'란



에서 전자파일로도 열람 가능하다.

한편 구로구는 구로 살림살이 책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올해 결산서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설문조사는 7월 15일까지 구청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문의) 구청 재무과 860-2711. <김유권 기자>

60세이상 취업 원하시면 전화하세요 (경비/청소등 전문 무료 알선 기관)

100세 시대... 아직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고... 과연 나에게 맞는 일자리가 있을까? (사)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 취업센터는 60세 이상 구직을 원하시는 분에게 무료로 취업상담 및 구직 알선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지금 전화 또는 방문해 주세요. ○준비서류 : 이력서 ○접수방법 : 방문접수(월~금 09:00~17:00) (사)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 취업센터

구로구지회 (신도림역 2번출구, 02)852-4598) 서울시 구로구 새말로 18길39, 1층

사랑의열매와 함께하는 구로구나눔네트워크 구로사랑 희망이음 캠페인

구로희망복지재단은 지역사회 기부자와 취약계층 주민을 연결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 지역맞춤형 나눔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원계좌 우리은행 015-176590-13-52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문의 02-867-1695 구로희망복지재단